



도민을 웃게하는 행복한 변화



2021년 적극행정·사회혁신·협업 우수사례집

도민을 웃게하는 행복한 변화



Chapter

01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반기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재난지원금 확보	10
전남 농수산물품 아마존 진출	13
해외 첨단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	17
골리앗 크레인 수출길 사이다처럼 뚫어주다	21
해남군, 여기가 흥보 맛집	25
지역대표 먹거리 달빛무화과 쌀빵 개발·판매	29
도림사 계곡 주민들 품으로 한 걸음 더	33
가위손 해결사, 전국 최초 과수전정단이 떴다!	36
통합 브랜드 콜택시, 목포 낭만콜	40
세금 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 응어리 해소	44
신기종 농기계(새싹보리·썩 수확기) 연구개발	50

하반기

남도장터 500억, 전국 지자체 쇼핑물 매출 1위	53
전국 최초! 온 맘(溫-mom) 선물 보따리 풀어	56
민·관·군 협력 '해상 백신센터 한산도함' 임무 완수	60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시작, 해남군	63
보성600, 600개 마을에 600가지 색을 칠하다	67
K-방역의 출발지 목포시, 현장행정으로 시민 안전 보장!	70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다는 곡성 꿈놀자 학교	73
공동주택 관리 선두주자 목포시, 아파트 관리의 기준이 되다	78
고정고객 DB구축과 온라인 판매로 농가소득 날개달다!	81
중앙부처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8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수립	87
완도읍 LPG 배관망 사업 취약계층 보일러 연계 교체	90
전국 최초, 국가지정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93

Chapter

02 사회혁신 우수사례

찾아가는 위기가정 반려식물 보급사업, 움직이는 나눔 냉장고로 밑반찬까지	98
해남천 살리기 프로젝트 '미생물발효 흙공아! 해남천을 부탁해'	102
종이팩 자원순환 챌린지 <유익한캠페인>	105
노인&장애우 협동 치유농업 활동	109
음식으로 소통하기 “다양한 밥상나눔&cooking스토리”	112
세대공감, 행복나눔 배달천사	116
주민 주체의 조직 활성화를 통한 나눔공동체 문화 확산 프로젝트! 'The(더) 나눔'	120

Chapter

03 협업 우수사례

생활불편 ZERO! 언제나 부르면 OK!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126
전국 최초, 초등학교 전체 우유 무상급식 확대	130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안전용품 설치·지원사업	134
민·관·경 협력 연안사고·해양쓰레기 없는 연안 만들기	138

도민을 웃게하는 행복한 변화



Chapter

01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반기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재난지원금 확보
전남 농수산식품 아마존 진출
해외 첨단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
골리앗 크레인 수출길 사이다처럼 뚫어주다
해남군, 여기가 흥보 맛집
지역대표 먹거리 달빛무화과 쌀빵 개발·판매
도림사 계곡 주민들 품으로 한 걸음 더
가위손 해결사, 전국 최초 과수전정단이 떴다!
통합 브랜드 콜택시, 목포 낭만콜
세금 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 응어리 해소
신기종 농기계(새싹보리·쑥 수확기) 연구개발

하반기

남도장터 500억, 전국 지자체 쇼핑몰 매출 1위
전국 최초! 온 맘(溫-mom) 선물 보따리 풀어
민·관·군 협력 '해상 백신센터 한산도함' 임무 완수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시작, 해남군
보성600, 600개 마을에 600가지 색을 칠하다
K-방역의 출발지 목포시, 현장행정으로 시민 안전 보장!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다는 곡성 꿈놀자 학교
공동주택 관리 선두주자 목포시, 아파트 관리의 기준이 되다
고정고객 DB구축과 온라인 판매로 농가소득 날개달다!
중앙부처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수립
완도읍 LPG 배관망 사업 취약계층 보일러 연계 교체
전국 최초, 국가지정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재난지원금 확보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코로나-19로 농업인의 소득도 크게 감소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계속해서 배제됐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도 포함되어 국비 323억원을 확보했다.

정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업인 제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인한 외식산업 불황은 농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은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불러와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방역수칙 강화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총 3차례에 걸쳐 31.4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농업인은 제외됐다.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
• 2020년 5월 • 14.3조원 • 전국민 대상	• 2020년 9월 • 7.8조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 법인택시 기사, 프리랜서 등	• 2021년 1월 • 9.3조원 •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농업인은 각종 피해를 감수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번번이 배제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농업 분야별 피해액을 통계자료로 작성해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에 나섰다.

- ▶ 2021. 2. 24.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업인' 포함 건의
- ▶ 2021. 2. 28.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시 국무총리에게 직접 건의
- ▶ 2021. 3. 19.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전체 농업인' 포함 건의
- ▶ 국회 방문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 포함 건의 설명(2회)

더불어, 도의회, 농업인단체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 ▶ 2021. 3. 4. 전라남도의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업인 포함 촉구 성명
- ▶ 2021. 3. 5.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 제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포함 촉구 성명

피해사례

화훼 줄임·입학식 등 행사 취소로 화훼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

* 화훼 거래량(2019년 대비/광주 원형) : 안개꽃 △81%, 장미 △76%, 국화 △7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시기를 놓쳐 생산 농가 및 공급업체 피해 발생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량(2020년/전남) : 15,979톤 (2019년 19,607톤 대비 18.5%감소)

인건비 상승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입국이 차단됨에 따라 농촌인력 부족과 대체 인건비 상승

* 1인 1일 인건비 : (2019년) 8~10만원 → (2020년) 11~15만원 (전년 대비 평균 43% 상승)

농촌관광객 감소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예약 제한 등으로 농어촌 민박 소득 감소

* 방문객/매출액 : (2019년) 3,051명/82백만원 → (2020년) 651명/17백만원 (전년 대비 79~80% 감소)

일반 농산물 외식산업 불황으로 인한 소비감소,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소득은 줄고,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해 적자 영농 지속

* 2021년 작물별 생산량 감소(전년대비/통계청) : 벼△6.4%, 보리△10.2%, 고추△22.2%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업인도 포함

이러한 노력 끝에, 2021년 3월 25일에 발표한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소규모 농가와 피해집중 5대분야 농가도 포함됐다. 국비 총 323억원을 지원해 소득 및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줬다.

- 소규모 농가(0.5ha이하) : 76,950호, 247억원
- 화훼, 학교급식 농가, 농촌체험마을 등 5대 분야 농가 : 7,227호, 76억원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농어민 공익수당'도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여 농가당 연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이 국가정책으로 도입되도록 지속 건의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정부의 정책에서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자 소감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팀장 **성진섭**

정부가 처음에 우리 농업인들을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전남 농수산물식품 아마존 진출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최근 확대되는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맞춰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 내에 지방정부 중 세계 최초로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했다.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판매 거점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마존 입점을 통한 온라인 수출로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제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온라인 수출 판로 확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된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에 개별 브랜드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자체 브랜드관 개설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온라인(on-line), 비대면으로 변화되었다. 배와 항공기가 다니는 항로가 막히고, 수출 여건도 힘들어지면서 우리 전남의 영세 농수산물식품 수출 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 판로가 필요했다.

지방 정부 중 세계 최초로

아마존 쇼핑물 내 「전남 브랜드관」 개설·운영

2019년 1월 전라남도 LA통상 사무소를 통해 미국 현지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온라인 식품전문관 개설 및 운영계획을 기획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아마존 내 전남제품의 시장성 검토를 위해 4개 기업의 상품에 대해 아마존 입점 및 판매 테스트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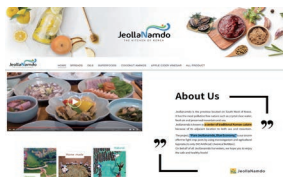
아마존 쇼핑물 내 브랜드관(Brand Store) 개설을 위해서는 현지 국가에 상표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2019년 11월 전라남도 농수산물품 수출상표 디자인을 신규 제작하고, 이듬해 2월 美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2020년 6월 상표가 최종 승인되었다.

2020년 7월 4일 지방정부로는 세계 최초로 아마존 쇼핑물 내 지방자치단체 브랜드관을 개설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쇼핑물 입점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브랜드관 입점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현지 위탁운영사를 초청하여 아마존 입점 컨설팅을 실시했고, 수출 경험이 거의 없는 20개 수출 초보기업을 포함해 22개 기업이 미국 아마존에 첫 수출을 시작했다.

또한, KOTRA,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함께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020.11.)을 체결하고, 협업을 통해 아마존 입점 제품 동영상 제작 및 라이브 판매방송을 지원했다.

이후 2021년 1월, 미국 외 아마존 진출 확대를 위해 영국과 EU 특허청에 각각 상표 등록을 한 후, 같은 해 7월 유럽 내 5개(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아마존 내에 전남 브랜드관을 추가 개설하였고, 2022년 2월 캐나다까지 전 세계 아마존 쇼핑물 내 7개의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2020. 5. 브랜드관 개설 준비



2020. 11. 업무협약식



2021. 4. 16. 선정식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었다. 국내 마케팅 전문기업은 마케팅, 물류,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 현지 경험이 부족했고, 수출기업은 수출 판로 개척에 대한 의지에 비해 기업 내 수출 전문가와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도에서는 미국 현지 마케팅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유사사업 실적이 많고,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위탁운영사를 선정하여, 현지 위탁사가 입점부터 판매대금 정산까지 현지 모든 과정을 전담해 수출 기업이 제품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했다.

아마존에서 월마트, 코스트코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남 농수산물

수출 경험이 부족한 초보기업을 포함하여 현재 총 49개 기업, 108개 제품이 온라인 수출을 통해 국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브랜드관을 통한 미국 온라인 신규 수출액은 누적 446만불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미국 현지 대형 오프라인 마켓 바이어들이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제품의 인기를 확인했으며, 이 중 35개 제품을 美 월마트 온라인몰에 입점해 판매중에 있다. ‘고흥 유기농 유자주스’와 ‘여수 오징어튀김스낵’ 제품은 美 최대 유통매장 중 하나인 코스트코에 입점하여 1차 물량만 각각 21.5만불과 29만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 미팅을 통한 바이어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아마존에 입점된 제품의 링크를 카탈로그 대신 제공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바이어와 실제로 수출이 성사 되는 사례도 있었다.

수출실적이 없는 영세한 신규 기업은 국내 수출 유관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선정에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으로 수출실적을 쌓음으로써 농수산물품 수출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021. 11. 에덴식품 상차식



2022. 1. 에덴식품 코스트코 판매중



2022. 2. 아라움 상차식



담당자 소감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팀장 **위지환**

과거 LA통상사무소 파견근무 시절부터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수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美 특허청 상표 등록 등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워졌지만, 기존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마존 내 전남 브랜드관을 개점, 전남 농수산식품을 입점시켰습니다.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성장하고 특히, 코스트코, 월마트 등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보면서 업무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냉동냉장제품이 다수인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위해 미국 내 전남산 농수산식품 자체 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덴식품영농조합
대표 **송재철**
#고흥군 소재

제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현지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과 포장 디자인 현지화 등 전라남도과 미국 현지 아마존 운영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준 덕분에 미국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품질관리와 제품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미국 코스트코 전국 700여개 매장에 전남의 유기농 유자주스를 입점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선**
#여수시 소재

해외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방의 작은 기업으로서 전문인력 부족, 현지 소비 트렌드 분석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아마존 입점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었으며, 아마존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 코스트코 등 현지 주류시장(Main Stream)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 판매되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은 대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입점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Orange County
호남향우회
회장 **장정순**
#미국

한국산 농수산식품은 한인마켓에 가야만 살 수 있었는데 코스트코에서 우리 전남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며 큰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미국 내 호남향우회는 물론 다른 지역 향우회에도 홍보하여 우리 제품이 미국 주류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우리 기업들의 제품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구매를 독려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투자유치과

해외 첨단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인프라와 인센티브 예산 부족에도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첨단기술 보유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합작투자 유치와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국비 지원율을 높여 빠른 투자 실현에 성공(투자규모 1.2조원)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업무보고에서 첨단소재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화 정부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 최우선, 지역소멸 위험 최고 지역인 전남은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첨단앵커기업 유치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첨단산업 분야 기업 대상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

전라남도는 2021년 해외 첨단기업 3개사 유치, 5천억원 투자협약, 외국인직접투자(FDI) 1억 5천만불 유치를 목표로 에너지신산업 및 정밀화학 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도내 산업단지 내 화학산업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여수산단의 용지는 부족했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해외 IR 활동 위축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한 투자정보 입수 및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여수산업 내 여유 부지를 소유한 국내기업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 간 합작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남해화학 부지+생산인프라 **일본 토소실리카** 고품질 친환경실리카 기술 보유

DL케미칼 부지+생산인프라 **미국 Rextec** 핫멜트 접착제 소재 첨단기술 보유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인센티브* 국비 보조비율 상향(60% → 70%)을 건의, 이차전지 배터리 유가금속 추출 첨단기술 보유 해외기업의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빠른 투자유치 실현으로 이어졌다.

* **외국인투자인센티브(Cash Grant)- 첨단소재부품장비 외국인투자(FDI)액의 10~40% 현금지원**

또한, 코트라 해외무역관, 도 해외사무소, 투자유치 자문관 등과 협업을 통해 비대면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국내 진출 외투기업인 초청 투자간담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IR 활동 제약을 해소해나갔다.

글로벌 앵커기업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4개 기업 10,576억원

1 첨단화학 실리카 생산(한-일 합작) 276억 원 투자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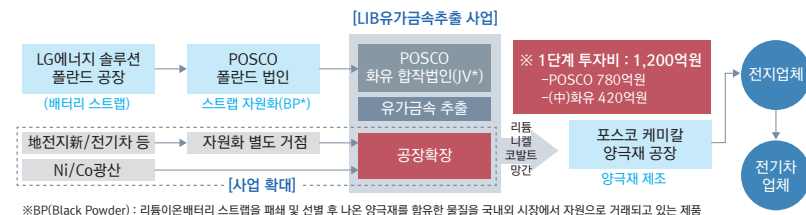
- 토소납해실리카 투자협약 체결 ('21. 4. 2. / 착공 '21. 5.)
- 타이어 성능을 높여주는 친환경 소재 실리카 연 2만톤 생산

2 이차전지 소재 핵심 원료(한-호주 합작) 7,600억 원 투자유치

- 포스코리튬솔루션 투자협약 체결 ('21. 5. / 착공 '21. 5.)
- 핵심원료리튬 첫 국산화 → 전기차 100만대 생산 가능한 리튬 43천톤 생산

3 첨단 친환경 배터리 자원화(한-중 합작) 1,200억원 투자유치

- 포스코HY클린메탈투자협약('21. 5. / 착공 '21. 9.)
- 전기차산업 급성장 전망 → 2030년 까지 6,500억 원 투자, 800명 고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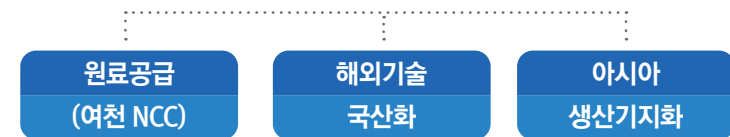


4 친환경 소재 핫멜트 생산(한-미 합작) 1,500억원(80명 고용) 투자유치

- 디렉스폴리머투자협약 ('21. 10. / 착공 '21. 12.)
- 핫멜트 접착소재 10조원('20) → 2025년까지 13조 원 성장 전망
- 미국 REXTac*사의 최초 아시아 APAO 제조공장
- *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위생용 접착제(APAO)를 최초 개발, Global 고객(Kimberly Clark, P&G 등)에 판매하는 유일 업체

한-미합작(JV)

(DL케미칼 74%+미국REXTac 26%)



5 LNG탱크 및 선박기자재 생산(홍콩) 170억원(20명 고용)투자유치

- 계성중공업 투자협약 ('21. 11. / 착공 '21. 12.)

2021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도는 2011년 이후 10년만에 '2021 외국인투자유치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2011. 11. 2.)

▶ 해외첨단기업 5개사 1조원(527명 고용) 투자유치, 외국인직접투자 2억불 달성

전남은 이차전지 소재원료 등 첨단산업 글로벌 생산 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신성장동력 분야 앵커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포스코그룹 이차전지 전남투자 현황 : 2021년까지 1조 8천억 → 향후 3조원까지 확대 전망



2021 기업투자유치 활동



2021 외국인투자유치 최우수기관 선정



2021 전남 투자협약 체결



“담당자 소감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팀장 박경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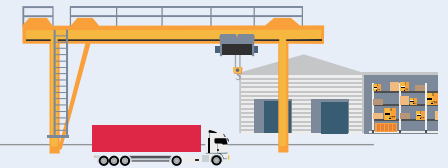
전라남도 투자유치과
주무관 이승화

비즈니스 미팅이 끝나고 기업인으로부터 “전남하면 맛있는 음식과 농산물 생산지역으로만 생각해왔는데, 첨단산업 분야 인프라와 역동적인 투자환경의 변화 등 새로운 투자지역으로의 매력을 느껴 전남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라남도 기반산업과

골리앗 크레인 수출길을 사이다처럼 뚫어준다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항만법」에서는 개인 부두 임대를 금지하고 있어, 타 기업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개인 부두가 없는 기업은 공용부두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물리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라남도는 법령 개정보다는 개인 부두 사용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허가청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설득,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전남 광양만권 울촌산업단에는 대형크레인과 선박 구조물을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 당초 경남 밀양에 있던 이 기업은 사업 확장을 위해 300여 명의 직원을 이끌고 2019년 3월 전남 광양으로 이전했다. 기업은 이전 후 인도(India) 기업과 250t 규모의 골리앗크레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하반기, 골리앗크레인은 제작되어 수출을 위한 선적과정만 남기고 있었지만, 청천벽력과 같은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기업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기업 부두를 통해 크레인을 선적하려고 했으나, 항만공사는 그 부두는 사용할 수 없고 기업과 멀리 떨어진 공용부두를 통해서만 선적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옆 부두는 개인기업이 소유한 부두라는 것이 이유였다.



크레인을 수출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 각서까지 써야 하나?

이는 단순히 이동 거리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이 입주한 지역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산단으로 지반이 매우 약했고, 부두에 이르는 도로 하단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매립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관 연결부위에 폴리악트레인처럼 중량물이 압력을 가하면 균열이 발생하여 폭발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매우 컸다. 기업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도로 위에 철판을 보강하고 이동에 방해가 되는 펜스와 표지판을 제거하며 공용부두로 크레인을 옮겼다.

또한, 바다와 맞닿은 공용부두 암벽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로 수천만 원을 들여 안정성 진단까지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동에 따른 가스폭발이나 도로파손이 있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시청과 가스공사에 제출하고서야 공용부두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계속해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나?

기업은 어렵게 수출은 했으나 앞으로가 문제였다. 바로 옆에 부두가 있음에도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 되고, 폭발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먼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기업으로서는 상식 밖의 규제였다.

「항만법」에는 개인 부두의 경우 부두 소유주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 규정도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업은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불필요한 규제라며 여러 기관에 수차례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담당 기관은 ‘법률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했으며, 다른 기관에서는 ‘권한 밖이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업의 어려움 청취

전라남도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남으로 이전한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문제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전라남도도 항만 사용의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다시 말해, 전남도가 타 행정청의 처분을 판단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규제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받고 잠재적으로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방관할 수 없었다.

먼저, 전라남도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규제 해소를 위해 관계 법령,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며 부두 이용 허가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특히, 법령에서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실정법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기 위함이며, 예외 규정의 포괄적인 해석을 통해 기업이 가까운 곳의 전용부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런 해석은 기업의 유불리를 떠나, 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가스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공익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양수산부, 감사원(적극 행정지원단),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방문하여 해당 규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 논리를 검토하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법령 개정 없이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해결방안 모색

허가청은 당초 기업이 자사가 소유하지 않는 전용부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며 규제의 부당함에 공감했다. 하지만, 허가청은 민간부두의 임대를 금지하는 항만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소수기업이 겪는 애로사항만으로 법령을 개정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령 개정까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라남도도 법령개정 대신 기업이 부두를 소유한 기업과 조립·선적계약을 체결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하면 해당 부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허가청과 기업이 수용함으로써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 이는 민간부두의 임대를 금지하는 항만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도적 연결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협업으로 해결한 기업의 수출길,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에 기여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민원을 해결하게 된 기업 대표이사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신규 중량물 수주를 중단하고 설비투자와 신규 채용 등을 포기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남에서 사업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검토했다”며 “이제는 수출길이 열려 사업 확장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채용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 더 이상 부두 사용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사업 확장과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구속하는 법령은 때에 따라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여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관계기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규제 해소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규제 해소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해남군 기획실

해남군, 여기가 홍보 맛집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최우수상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정책 호감도도 급상승



딱딱한 홍보는 가랏...

홍보팀은 공무원인가 예능인 인가??

해남군정 홍보는 보도자료 등 텍스트 중심의 홍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SNS홍보라는 시대에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

해남군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강화라는 목표를 걸고 전담인력 충원을 시작으로 SNS 활성화에 나섰다. 홍보팀 자체가 평소 SNS 활동도 잘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했다

맨땅에 헤딩 함 해보자~!!

“해남군, 여기가 홍보 맛집”

주요 도전 목표는 딱딱한 정책홍보를 알기 쉬운 콘텐츠 맛집으로, 일방적 소통체계를 군민들의 참여를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대외적인 홍보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홍보 맛집 로드맵을 추진했다.

첫 번째 해남군 공튜버가 났다!!

C급 갬성 콘텐츠 맛집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야다 보니 막막함이 컸다.

흥미를 끌 수 있는 영상에 대한 기획부터 영상 촬영과 편집까지 모두 처음해 보는 업무였던 것이다. 홍보팀은 유튜브를 보며 인기영상을 찾고 영상 편집도 공부하고 멋진 영상을 찍기 위해 드론 자격증도 났다.

또한 C급 갬성구현을 위해 홍보팀이 직접 출연, 제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콘텐츠 주제는 주로 유튜브상 이슈 콘텐츠나 챌린지를 활용한 영상으로 '1일 1깡'이란 신조어까지 생긴 가수 비의 노래 '깡'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란 이슈를 접목한 '해남군 공무원 깡커버' 영상을 비롯하여 유기견 신고를 강조한 동방았네(2.4만회), 주라주라(7천회) 등으로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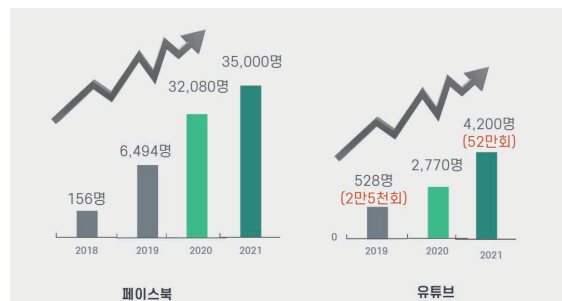
처음에 춤도 안 댄서 신문고 신고도 들어오고, 기획도 어려웠지만 군민들의 응원메세지, 조회수에 힘을 얻어 열심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156명이었던 해남군 페이스북 팔로워가 3만5천명으로 늘었고 유튜브 조회수는 2018년 2만5천회에서 현재 52만회라는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각종 TV매체에서 자료로 활용되는 등 트렌드를 읽는 해남군 홍보의 힘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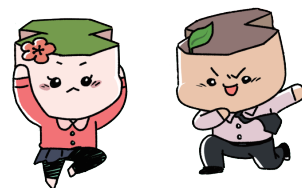
더불어 코로나19 온택트 홍보의 흐름에 맞춰 해남군의 각종 관광지 드론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매체에 공유했다. 계절별 드론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집콕의 무료함을 이길 수 있는 심리방역에도 신경을 썼다.

또한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웹툰을 통해 해남군 정책을 쉽고 트렌디 하게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남군 마스코트 땅끝이와 희망이를 캐릭터화한 '신입 공무원 땅끝군의 해남일기'가 제작되었다. 해남군청 홍보팀으로 첫 출근한 9급 공무원 땅끝군의 모습을 통해 월2회 군 정책을 주민들에게 쉽게 알리고자 했다.

해남군 SNS홍보 변화 추이



신입사원 생존기를 다룬
해남웹툰



너만 알지 말고 같이 알자?? 소통맛집

생산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나도 농산물 쇼호스트이다.' 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에 입점한 농가를 방문해 농산물 재배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했으며, 해남군 SNS 월별 이벤트를 통해 해남미소 상품을 발송했다.

이것의 시너지 효과인가요? 2019년에 53억원이던 해남미소 연 매출액이 2021년에는 224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서 홍보팀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추진했다. 과연 군민들의 호응이 얼마만큼이나 있을까라는 고민이 무색하게 1만 3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 군민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많이 입소문 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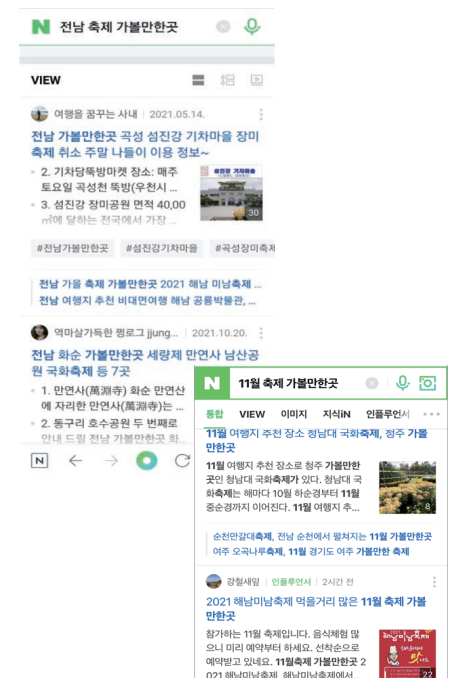
확산맛집

미디어 홍보도 중요하지만 검색률 1위인 네이버 플랫폼을 무시할 수 없죠

SNS 인플루언서 홍보단 10명을 공개 모집하여 해남군이 네이버블로그에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월별 미션을 부여했다.

하루 3,000명 이상의 방문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의 홍보효과는 2020년 노출수 71건 조회수 59만회, 2021년 노출수 81건 조회수 41만회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주요 축제 시 온라인 사전홍보, 오프라인 체험홍보 등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네이버상 해남군 콘텐츠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홍보했다.



공무원의 미디어분야 적극행정을 통한 저예산 홍보영역 확장

페이스북 구독자가 156명에서 3만5천여명, 유튜브 조회수가 2만5천회에서 52만회로 보도 자료와 더불어 중요한 홍보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택트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디어 중심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등 홍보 효과가 확대되었다.

또한 각종 tv 매체에서 해남군 유튜브 패러디 영상을 자화화면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똥 밟았네’ 춤추고 토크쇼
해남군 공식 유튜브 채널



“해남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보팀 오봉호 팀장(오른쪽)과 김주현(왼쪽) 팀장이 출연한 ‘똥 밟았네’ 패러디 영상이 조회수 2만4,000회를 기록했다.”



[비타민 뉴스] '아이디어 반짝' 지자체 홍보영상 | KBS 201105 방송



담당자 소감

해남군 환경교통과
과장 **이광재**

해남군 기획실
주무관 **김해영**

처음엔 콘텐츠 제작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는 작품을 볼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해남군 유튜브를 알아봐주시는 군민을 뵈는 때면 시작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군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영암군 여성가족과

지역대표 먹거리 달빛무화과와 쌀빵 개발·판매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우수상



“계절과일 무화과” 사계절 맛볼 수 있는 지역대표먹거리로 변신

영암군 특산물인 무화과를 활용한 ‘무화과 쌀빵’ 개발, 지역 대표 먹거리의

관광 상품화로 농가와 가공업체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영암군 대표 특산물 무화과

전국 어디에서나,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게

‘달빛무화과 쌀빵’ 개발 시작

영암군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의 총 생산량은 2020년 기준 3,815톤이며 전국 생산량의 5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화과는 맛·품질 등 상품성에 비해 국민들 인지도가 낮고 저장성이 낮아 제철(8~10월) 외에는 생과로 맛볼 수 없는 과일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무화과 대부분은 생과로 판매되고 있으며, 잼·말랭이·식초와 같이 무화과를 활용한 가공식품이 일부 판매되고 있으나 소비층의 한계로 판매가 저조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인 무화과를 전국 어디에서나 사계절 맛볼 수 있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선물용으로도 구입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쌀과 무화과를 활용한 ‘달빛무화과 쌀빵’의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재배농가-제과점 영업주-영암군-지역농협의 협업으로 생산에서 판매, 홍보까지

2020년 1월 무화과 쌀빵 개발 영역에 앞서 관내 무화과 재배 농가와 제과점 영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에 사업비 14백만원을 투입 무화과 쌀빵 영역을 착수하였으며, 관내 제과점 영업주, 지역농협, 군 관계자,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간·최종 보고회, 품평회, 레시피 전수교육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했다.

2020. 6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달빛무화과 쌀빵’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어 7월에는 무화과 모형 빵틀 제작, 10월에는 관내 제과점 3개 업체와 판매 협약 체결, 12월에는 포장 디자인 제작 및 영양성분 분석까지 완료하여 판매 준비를 마쳤다.

그 간 관내 제과점 3개 판매업체에는 지역농협과 재배 농가와와의 협업을 통해 재료공급 네트워크 구축 및 박스·포장지·포장기계 구입비 등의 보조금 지원,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도 하였으며, 신문, 방송, 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도 쉽 없이 추진했다.

드디어 2021년 1월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달빛무화과 쌀빵’을 출시하여 관내 판매 협약 업체 3개소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데 이어, 4월부터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기찬들 영암물’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순탄하게만 흘러갔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 지역특산물로 지역대표 빵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 표명 시 주위의 격정과 앞서 무화과를 활용한 빵 만들기에 실패한 제과점 영업주들의 염려 속에 심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으며, 용역 완료 후에도 맛·색감·모형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종 레시피 완성의 어려움, 원재료의 단가 상승, 수제 쌀빵이라는 특징으로 군청과 판매업체 간 판매가격 의견 차이도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팀원들의 협조, 무화과 재배 농가 및 지역농협과 참여 판매업체 제과점 영업주들의 협업으로 ‘달빛무화과 쌀빵’이 개발되었으며, 지역대표 관광상품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재배농가 의견수렴 장면



무화과쌀빵 용역 중간보고회 장면



레시피 전수교육 장면

2021년 한 해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10만개 판매

우선 계절 과일인 무화과를 활용하여 지역 대표먹거리로 관광 상품화하였다는 점에서 무화과의 국민 인지도 향상과 친환경 먹거리의 영암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달빛무화과 쌀빵’ 첫 판매기간(2021. 1. ~ 2021. 12.) 동안 무화과 약 10여톤을 소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10만개를 판매하고 1억 4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무화과 재배 농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무화과 쌀빵’은 수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고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 영암군, 판매업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발효기술과 함께 전문적인 제조·가공 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달빛무화과 쌀빵 판매 협약식



달빛무화과 쌀빵 제품사진



달빛무화과 쌀빵 이야기

무화과 재배농가

무화과를 활용한 가공식품으로는 크게 성공을 못했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무화과 쌀빵을 개발·판매에 나서주셔서 감사하다. 건강하고 맛있는 무화과 쌀빵 관광 상품화로 무화과의 고장 영암군을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

판매 협약업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영암군에서 맛있고 영양 만점인 무화과 쌀빵을 개발하여 온·오프라인 판매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무화과 쌀빵이 지역대표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구입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나 지인들에게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상품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지역특산물인 무화과와 쌀을 활용한 ‘달빛무화과 쌀빵’을 선물하게 되어 정말 좋다.

담당자 소감

영암군 여성가족과
과장 **유미경**

우리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인 무화과와 쌀로 만든 달빛무화과 쌀빵이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암군 여성가족과
팀장 **박수희**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추진한 ‘달빛무화과 쌀빵’개발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대표 관광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곡성군 관광과

도림사 계곡 주민들 품으로 한 걸음 더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우수상**



도림사 계곡은 주변 상가에서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경관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계곡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했고 여기에 상가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림사 계곡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인근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도림사는 동약산 기슭에 자리잡은 천년 고찰로 삼국시대 신라 승려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도림사 앞으로 전라남도 기념물 101호인 도림사 암반 계곡이 있어 맑은 물줄기가 반석 위를 사계절 내내 보석처럼 반짝이며 흐르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도림사 주변 상가들이 계곡 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점유함으로써 계곡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은 분명하였다.

고심 끝에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도림사 관광지 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 변화에 상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림사 계곡 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불법 시설물 철거



불법 평상 및 천막



불법 방갈로

※ 도림사 계곡 인근 식당에서 불법으로 평상 및 차광막을 설치, 관광객 상대로 불법 영업에 따른 민원 발생 및 불쾌감 팽배 (상가 3개소-불법평상 100여개, 방갈로 1EA, 불법철교 1개소 등)

주민들 간 얽힌 실타래를 풀어 본래 모습을 되찾은 도림사 계곡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실터 제공

30년 동안 불법 상행위가 지속되어 오며 따라 상가들은 불법 영업행위를 당연시했으며, 상인들 간에 영업 경쟁과 이해관계가 얽혀 실타래를 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상가 주민들의 생존권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했다.

2차례의 간담회와 수십 차례의 현장 방문으로 상인들을 설득해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었고, 곡성군 안전건설과, 관광과, 문화과 총 3개 관계부서가 협력하여 주변 상가와 함께 도림사 계곡을 정비하자는데 뜻을 모으게 되었다.



상가들과 간담회(2회)



관계부서 대책회의(3회)



상가주민들과 현장 협의(5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했었다.

그러나 상인들과의 소통, 관계부서와의 협업, 적극 행정을 통해 관광지 활성화와 상인들의 생존권을 둘 다 해결하는 타협안을 도출하였고, 더불어 천년 사찰 도림사 계곡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도림사 계곡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관광지로서의 역할과 인근 상가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미담사례

도림사 계곡 이야기

계곡을 찾은 관광객

예전의 깨끗한 도림사 계곡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 좋고 여름 휴가철 등에 주민, 관광객들과 상인들의 참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지역상가 주민

그 동안 평상은 우리들의 생업이라 처음에 반대하고, 직원들과 다투기도 했지만, 정비하고 나니 깨끗하고 좋네요. 이제 군에서도 관리를 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왔으면 좋겠네요.

곡성문화 해설사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다.
관광객들과 이곳에 올 때 마다 하천 내 불법 영업 행위를 보고 곡성 문화해설사로서 낮 부끄러웠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니 얼마나 보기 좋은가~

담당자 소감

곡성군 관광과
팀장 임채우

변화의 시작은 힘들었지만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쾌적하고 변화된 도림사 계곡을 보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곡성군 안전건설과
주무관 조현중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가와 관광객들 민원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 계곡이 정비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장성군 원예소득과

가위손 해결사, 전국 최초 과수전정단이 났다!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우수상



우리 지역 농업인을 과수 전정단으로 육성하여 과수 농가의 고령화 및 전문 전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과수 수형개선으로 농업인 소득도 향상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 전정 전문인력 필요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과수농가의 전정 수요는 해마다 발생하지만 과수농가의 고령화(70세이상 32%) 및 전정인력의 전문성 요구로 인해 고질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이었다. 또한 외부 전정 인력(비전문가) 활용에 따른 나무 수형 및 과수 품질 불량으로 생산성이 감소하고, 지역자금(과수전정비용)이 관외로 유출되는 실정이었다.

과수전정이란?

상품성 있는 과일생산을 위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겨울철 필수작업으로 과일농사의 70%를 차지



전정 전



전정 후

농업인대학에 과수전정 교과과정 마련, 과수전정단 108명 육성

전정기술 정립을 위한 전문가 부재 및 과수농가 고령화에 따른 전정기술(노하우)이 취약하다는 점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 최고 전정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중심 실습교육을 추진하였고, 제도 활성화 및 전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수 전정 희망농가를 매칭하였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에 과수전정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연간 20회의 현장중심 교육과 실기시험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8명의 과수전정단을 육성하였고, 이들은 지역농가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과수 수형개선으로 농가 소득 46%향상, 겨울철 일자리 창출 효과

과수전정단 양성을 통해서 취약계층 과수농가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많은 농가들이 그 혜택을 보았고, 입소문을 통해 매년 과수전정단 이용 농가는 늘어나고 있다.

구분	계		2020년		2021년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계	93	50.5	40	8.9	53	41.6
사과	48	26.5	23	4.4	25	22.1
감	45	24	17	4.5	28	19.5

또한 전정비용의 절감 효과도 눈에 띄었다. 시중단가인 18만원에서 15%가량 감소한 15만원으로 절감하였고, 연간 100명의 과수전정단을 투입하였을 때 전정비용의 외부유출 방지 효과는 연간 3억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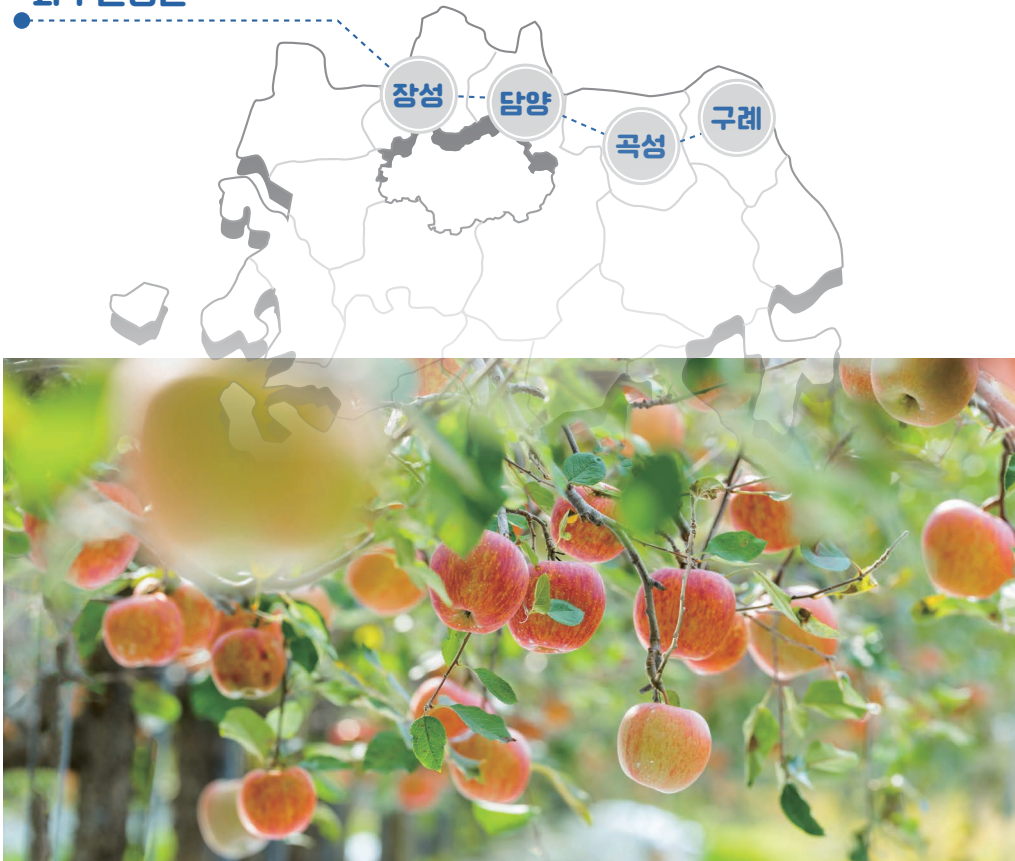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과수 수형개선 효과를 통해서 감의 중상품과 비율이 30%에서 50%로 상승함에 따라 기존수형을 기준으로 300평당 소득이 150만원이었다면 수형개선을 통한 300평당 소득은 220만원이 되어 농가의 소득은 46% 향상되었고, 겨울철 농한기에 1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인력으로 과수전정단을 구성한 덕분에 외부 인력 투입으로 인한 과수화상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 전국 화상병 발생면적 : 2018년) 34ha → 2019년) 127ha → 2020년) 325.5ha

앞으로는 과수 주산지역별로 「전남 과수 연합 과수전정단」을 구성하여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고령자 등 전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정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 북부권 연합 과수전정단



미담사례

과수전정 수요농가 만족도

고령농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우리 지역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

장기입원농가

1회성 전정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으로 입원 중인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감사하다.

전업농가

과수전정단의 전문성과 경력이 더해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담당자 소감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과장 박언정

처음에 과수전정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다가 우리 지역 농업인으로 전문가를 양성해보자고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은 3기 전정단까지 양성되어 활발히 활동중입니다.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시책이 되어 뿌듯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고 활동해주시는 전정단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팀장 신정선

코로나19로 인해 그룹별 교육이 진행되어 1~2기 전정단 활동의 협업을 걱정하였지만 우리지역 사정을 잘 아는 농업인으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활동해주신 전정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포시 교통행정과

통합 브랜드 콜택시 '목포 낭만콜'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장려상**



전국 최초 개인법인택시 통합 목포 낭만콜 일원화 서비스를 통한 운수종사자의 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 플랫폼 확대로부터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택시 이중배차 해소 및 앱호출+전화콜 통합 운영으로 시민 편의 증대

브랜드 콜택시 통합 논의 시작과 예기치 못한 변수 발생

카카오택시 등 대기업 플랫폼의 영업확대와 택시 회사별 운영되는 콜 업체 연간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목포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8년 법인택시 대표협의체와 노동조합 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존 브랜드(전화콜)의 통합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8년 11월 운수종사자에게 콜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택시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브랜드콜 통합에 따른 종사자 콜비용 절감 등 혜택이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택시업계 노조측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법인택시 중 4개사가 보류의견을 보내는 등 통합사업이 표류되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업계 설득과 시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2019년 6월 법인택시업계 간담회를 다시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민·관의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었다. 협의체를 통해 시와 택시 회사가 통합콜 확대를 적극 논의한 결과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추진할 수 있었다.



타 시와는 차별화된 개인·법인 택시 통합 브랜드 콜택시

법인, 개인 콜택시 다수 업체가 개별적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통합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자사의 영업손실 발생 우려가 커 업계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또한, 통합 앱을 만들더라도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스마트폰 앱에 익숙하여 사용률이 저조할 수 있으며, 앱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의 사용 기피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과 동시에 전화로도 호출이 가능한 앱을 만들고, 통합 범위를 목포 전체 택시로 확대하여 1,500여대 택시 전부 통합으로 브랜드콜 이용률을 끌어올리자며 택시업계를 설득했고, 모두 한 뜻으로 힘을 모으게 되었다.

법인, 개인 콜택시 다수 업체
개별운영으로 통합 반대



2년 동안 수십 차례 방문·면담(56회),
회의개최(13회) 등으로 택시 업계 설득

전체 택시회사 택시방법등을 목포 브랜드로 통일

이후 2020년 7월 브랜드 콜택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콜 준비를 하였고, 10월에는 “목포 낭만콜”이라는 브랜드콜 명을 선정, 차량 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2020년 11월에 1,500대(법인택시 576대, 개인택시 924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목포 낭만콜 운행을 개시하게 되었다.



2020. 11. 9.
목포낭만콜
운행 개시

민간앱택시(카카오택시 등)와 비교 시 특·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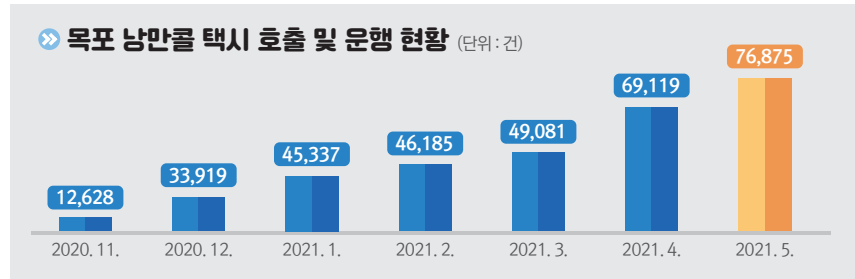
- ▶ 기사 관리 및 자격 제한 가능(기사용 앱 제공 시, 운전자 인증 승인절차)
- ▶ 앱 또는 음성통화를 선택 가능(카카오택시는 음성통화 콜 기능이 없음)
- ▶ 지역특성 반영한 브랜드앱 개발 활용(시민, 기사 편의성 반영 개선 용이)
- ▶ 관내 종사자 대상 시정홍보 및 공지사항 전달 가능 / 승객민원 처리 가능
- ▶ 카카오택시에 비해 빠른 배차 관리 가능(빈차만 호출 및 배차하는 방식 적용)

브랜드 콜택시 사업과 병행하여, 택시방법등 통합으로 목포시 대표브랜드인 ‘낭만항구 목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타 시와 차별성 있는 목포 택시만의 통일된 브랜드를 구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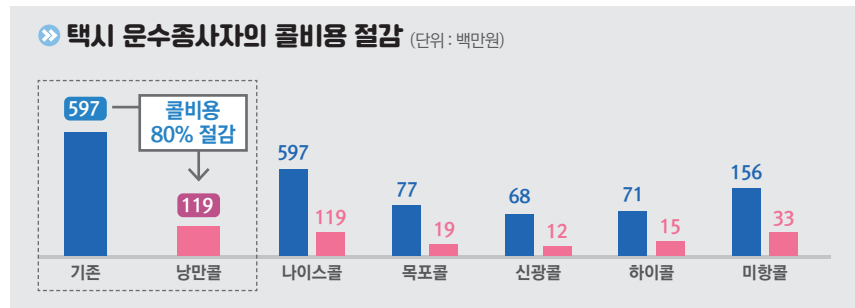


시 브랜드 <낭만항구 목포>와 연계한 민관 협력 브랜드 콜택시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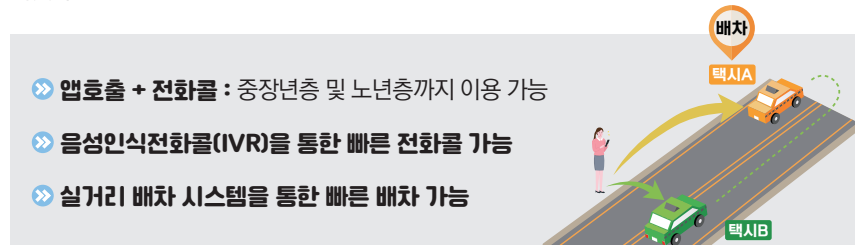
운영 첫 달인 2020년 11월 1만 2,628건을 시작으로 매달 호출 건수 평균이 4만5천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2021년 5월 기준 32만 516건의 사용을 기록하게 되었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콜비용도 기존 597백만원에서 약 119백만원으로 80%이상 절감 하는 등 비용절감 효과도 보게 되었다.



기본 기능인 앱호출뿐만 아니라 전화콜 기능까지 추가하여 중장년층 및 노년층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성인식전화콜(IVR)을 통한 빠른 전화콜이 가능하여 어르신들도 적극 호응하게끔 준비하였다. 또한 실거리 배차 시스템을 통한 빠른 배차로 시민 편의를 증진 시켰다.



미담사례

적극행정 ON 국민추천 사례 中

목포에서 낭만콜을 이용했어요.

아들이 앱을 쓰길래 봤는데, 택시도 금방 오고 좋더군요.

저는 어플이 아직도 익숙지 않지만 전화도 된다고 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합니다.



담당자 소감

목포시청 교육체육과
팀장 조영설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함께 동참해주신 택시회사 대표님과 운수종사자님께 감사드리며 목포 브랜드콜 택시 “목포 낭만콜”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주무관 이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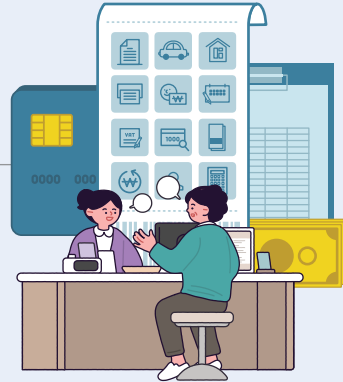
목포낭만콜이 운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한 11개의 목포 택시업체들의 도움과 브랜드콜택시추진위원회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순천시 징수과

세금 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 응어리 해소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장려상**

납세담보와 공매를 활용한 고액체납세 징수



징수권 후순위자인 순천시의 징수활동 보류, 체납자는 더 깊은 체납 수렁에 빠져

체납자는 소유 재산 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저당 설정으로 오랫동안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국세(소득세)는 지방소득세보다 먼저 부과되고, 세무서는 지자체보다 선압류, 압류선착수주의(조세) 적용으로 세무서가 우선 징수권자가 됨에 따라, 순천시의 결손처분, 수십 년간 체납세 징수 활동 보류로 체납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온 삶이 더 깊은 체납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이에 시민이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도전이 납세담보 제도이다.

체납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발상의 전환, 납세담보 제도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

지금까지 세금 징수유예 시 활용되는 '납세담보 제도'가 압류선착수주의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 재산 매각 시 국세에 우선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결손(고액) 체납자를 면밀히 분석했다.

1 고액 결손자(체납자) 납세담보 실익 분석 및 실태 조사

- 고액 결손자: (대상) 70명(24억) / (납세담보 가능) 12명(4억원)
- 고액 체납자: (대상) 74명(47억) / (납세담보 가능) 5명(8억원)
- 실익분석, 납세담보 설정 및 공매 추진 : 2020. 2. ~ 계속(연 6회)

2 후 순위 압류권자(순천시)가 납세담보 설정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과정

조사대상 선 정	부동산 권리 분석	체납자 방문 (이해, 설득)	납세담보 등기설정	공매처분& 체납세 징수
고액체납자 결손체납자 (납세담보 실익 조사)	조세채권 상호, 일반채권과 배당 순위	납세담보 제공 요구	구비서류 징구 (납세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공매 매각

3 납세담보 설정으로 체납세 징수한 주요사례

가. 27년 전 주민세 체납자 납세담보로 지방세 징수한 사례

체납자	박00(58년생)	체납액	9백만원
최초납기일	1994. 1. 31.	주요세목	주민세(종합소득) 등 10건
결손일	2004. 2. 20.		
압류재산	[토지] 전남 순천시 000 외 1		
압류재산 등기부기입 및 공매절차	1995. 7. 19. 압류(순0세무서, 체납세 9천만원) 2000. 4. 27. 압류(순천시) <u>2020. 4. 2. 근저당권설정(납세담보 - 순천시)</u> 2020. 6. 25.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 2020. 11. 4. 배분실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배분순위 (배당: 8백)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순천시(납세담보)	704천원 7,447천원	

- 체납자 박00은 사업 부도, 1994년부터 지방세 10건 9백만원 체납
- 세무서 선압류(1995.7.19.), 순천시 압류(2000.4.27.), 결손(2004.2.20.)
- 순천시 공매의뢰, 세무서 선압류로 공매 실익 없음 반려(2004.4.)
- 여섯 번의 만남에 따른 설득 끝에 납세담보 제공(2020.4.2.)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2020. 11. 4. 체납세 7백여만원 징수

나. IMF 부도 체납자 납세담보로 체납세 징수 사례

체 납 자	오OO(47년생)	체 납 액	132백만원
최초납기일	1998. 6. 30.	주요세목	재산세 등 6건
결손처분일	2001. 8. 4.	주요세목	재산세 등 6건
압류재산	[토지] 순천시 000		
압류재산 등기부기입 및 공매절차	1998. 9. 21. 가압류 외 다수(한국생명 9억원) 1999. 4. 12. 압류(OO세무서 5억원) 1999. 4. 22. 압류(△△세무서 10억원) 1999. 10. 29. 압류(△△구청 67백만원) 2000. 1. 7. 압류(순천시 132백만원) 2020. 12. 10. 근저당권설정(납세담보 - 순천시) 2020. 12. 23.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순천시) 2021. 5. 4. 배분실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배분순위 (배당: 51백)	(1순위) 체납처분비 2백만원 (2순위) 순천시(납세담보) 49백만원		

- 체납자는 IMF 부도로 1998년 국세 20억과 지방세 132백만원 체납
- 세무서 외 2 선압류(1999년), 순천시 압류(2000.1.7.), 결손(2001.8.4.)
- 체납자는 아파트 경비와 최저생계비를 지원 받으면서 살고 있었음
- 2020.4.~12. 24차례 전화/만남을 통해 납세담보 설정(2020.12.10.)
- 2021.5.4. 매각대금 전액(49백만원)을 순천시 체납세 충당

다. 체납자 사망(2020.7월) 전 납세담보로 지방세 징수사례

체 납 자	김OO(52년생)	체 납 액	53백만원
최초납기일	1998. 4. 30.	주요세목	주민세(양도소득세) 등 37건
결 손 일	2004. 6. 21.	주요세목	주민세(양도소득세) 등 37건
압류재산	[토지] 전남 순천시 000		
압류재산 등기부 기입 및 공매절차	1997. 11. 5. 근저당권설정(정OO 35백만원) 1998. 2. 14. 가압류(대OOOO(주)) 외 1건 1999.10. 25. 압류(OO세무서 192백만원) 2000. 1. 6. 압류(순천시) 2000. 5. 20. 가압류((주)한OOOOOOOO) 외 1건 2020. 4. 2. 근저당권설정(납세담보 - 순천시) 2020. 9. 2.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 2021. 1. 6. 배분실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배분순위 (배당: 73백)	(1순위) 체납처분비 3백만원 (2순위) 정OO(근저당권자) 35백만원 (3순위) 순천시(납세담보) 35백만원		

- 김OO은 IMF때 70억 부도, 교도소 수감/출소, 여섯 차례 주민등록 말소
- 정OO 근저당(1997.11.), 세무서 선압류(1999.10.), 순천시 압류(2000.1.), 결손(2004.6.)
- 체납자는 말기 암 환자로 투병 중 납세담보 근저당권 설정 제공
- 체납자 사망(2020.7.), 납세담보 재산 공매로 체납세 35백만원 징수

4 실무상 어려움 및 해결노력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결손 처분된 체납세에 대해서는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장기간 밀린 체납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납자를 반드시 대면으로 만나야 했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는 체납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찾아가기도 어렵고 수소문해도 연락처 파악이 쉽지 않았다. 어렵게 연락이 되더라도 오래된 체납세를 가지고 힘들게 하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징수공무원은 체납자의 상황에 공감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납세담보 설정에 따른 공매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개시로 '체납자는 마음의 고통과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시는 지방세 충당으로 상생의 기회를 함께 한다' 는 원원전락을 강조하며 적극 설득했다. 압류부동산을 납세담보로 변경 설정한 한 건의 사례를 통해 다른 납세자를 설득하자 또 다른 사례가 봇물 터지듯 시민의 마음은 열렸고, 징수를 포기했던 여러 건의 고액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었다.

활용 전 (압류선착수주의로 지방세 미배당 사례)	활용 후 (납세담보로 지방세 배당 사례)
선OO(지방세 체납 122백만원) <압류재산 등기부 순위> ① 2018. 6. 25. 근저당권설정 ② 2018. 7. 23. 세무서 압류 ③ 2019. 4. 19. 순천시 압류 ↳, 2019. 5. 9. 공매(세무서) (1순위) 체납처분비 10,369천원 (2순위) 순천시(당해세) 394천원 (3순위) 세무서 307,085천원 ※ 3번 압류권자인 순천시는 당해세 외 배당금 없음	오OO(지방세 체납 132백만원) <압류재산 등기부 순위> ① 1999. 4. 12. A세무서 압류 ② 1999. 4. 22. B세무서 압류 ③ 1999.10. 29. OO구청 압류 ④ 2000. 1. 7. 순천시 압류 ① 2020. 12. 10. 납세담보설정 (근저당권설정-순천시) ↳, 2020. 12. 15. 공매(순천시) (1순위) 체납처분비 2백만원 (2순위) 순천시(납세담보) 49백만원 ※ 순천시 전액 배당(2021.5.4.)

채납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채납세 5억6천만원 징수

- ▶ 20년 이상 채납의 굴레에서 살아온 채납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4명
- ▶ 징수 불가로 결손처분한 채납을 납세담보 설정으로 공매 추진: 9명
- ▶ 후순위 압류권자가 납세담보 설정에 따른 공매로 채납세 징수: 6명 463백만원
- ▶ 납세자와 적극적인 소통, 채납 해결로 징수행정 신뢰성 향상: 최대 24차례 상담
- ▶ 새로운 징수기법 개척으로 전국 지자체 사례 전파 시 세수증대 기여
↳, 전라남도 시군 납세담보 활용 요청(세정과-8751, 2021.8.2.) / 대상 82명, 52억

▶ 납세담보 근저당권설정, 공매진행 및 채납세 징수 현황

연번	채납자	채납액	채납 년도	납세담보 물건	저당권 설정등기	진행상황	징수액 (예상)
계	13명	874		20건			559
1	박□□	9	1994	순천시 토지	2020.4.2.	배당완료(2020.11.1.)	7
2	김□□	53	1998	순천시 토지	2020.4.2.	배당완료(2021.1.6.)	36
3	오□□	132	1998	순천시 토지	2020.12.10.	배당완료(2021.5.4.)	49
4	장□□	14	1999	순천시 토지	2021.2.24.	공매의뢰(2021.3.8.)	14
5	김□□	58	2001	순천시 토지	2021.2.18.	공매의뢰(2021.3.5.)	30
6	이□□	6	2006	순천시 토지	2021.2.24.	공매의뢰(2021.3.5.)	6
7	김□□	14	2007	광주광역시 토지, 건물	2020.11.20.	공매의뢰(2020.12.7)	14
8	허□□	13	2015	순천시 토지	2020.11.25.	공매의뢰(2020.12.9.)	5
9	김□□	41	2017	고흥군 토지	2021.2.24.	공매의뢰(2021.3.5.)	10
10	강○○	100	2017	광양시 토지	2020.3.16.	자진납부(2020.4.22.)	100
11	민○○	329	2018	광주광역시 토지, 건물	2020.2.20.	배당완료(2021.3.10.)	194
12	임○○	17	2019	광양시 토지	2020.4.1.	공매보류	17
13	이○○	88	2019	순천시 집합건물	2020.2.25.	배당완료(2020.10.21)	77

※ 1번 ~ 9번 : 채납세 징수불가능으로 결손 채납자 중 납세담보 저당설정자

미담사례

시민의 이야기

납세담보 제공자 오○○(74세)

2020. 4월부터 8개월 동안 순천시와 24차례 상담을 통해
지난해 12월 초에 납세담보 설정에 동의
“IMF 부도로 채납세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순천시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납세담보(2020년 4월) 제공자 김○○

말기 암 환자로 투병 중 사망(2020년 7월)하였으나,
생전에 채납 압류재산 상속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처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납세담보 설정이라는 방법으로
압류 재산 공매 추진에 대해 미안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



담당자

순천시 징수과
과장 문병태

순천시 징수과
팀장 문채기

순천시 징수과
주무관 이경하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신기종 농기계 (새싹보리·숙 수확기) 연구개발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장려상**



전국 최초 새싹보리·숙 재배농가의 수확 인력수급, 인건비 상승,
악성 노동 등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코자 신기종 농기계를 연구·개발하고
임대농기계로 기술보급 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

새싹보리·숙을 수확 할 수 있는 농기계가 '전무후무'한 상황

영광군은 보리 특구 지역으로 벼농사 후 이모작으로 쌀보리와 청보리를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리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제품 개발과 판로 전환이 요구됐다.

새싹보리는 급격한 소비증대로 국내시장은 1천 5백억 원, 일본 시장은 1조 원을 넘는 건강 &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에 영광군에는 새싹보리를 재배하고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3개소가 운영 중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신소득 작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알곡 보리는 기계화가 100% 된 반면 새싹보리는 어린 보리의 상단 잎 부분만 수확해야 하므로 사람이 직접 낫을 이용해 수확을 하고 있었다.

농촌은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새싹보리 수확 시 사람이 직접 수확하게 되면 인건비 과다 지출로 농가의 소득은 경미한 수준이었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싹보리 재배농가의 농기계 도입이 시급함을 판단하고 농가 애로 사항을 덜어주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기존 인력수확 경영분석



타용도 농기계 수확 실험



새싹보리 가공식품 유통

새싹보리전용 수확기 자체 연구개발 및 품평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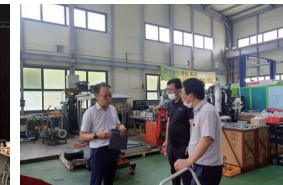
농가 상황을 알리고 해결하고자 상급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전남농업기술원에 건의하였으나, 특정 지역과 일부 작목에 한한 농기계 연구개발이 어렵고 예산편성과 단기간 개발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 보급된 농기계 전수조사와 해외 관련 기술까지 조사한 후 검토와 협의 끝에 '영광군 자체 연구개발 추진'을 기획하였으며, 2019년 농기계 연구개발비 1억 원(군비 100%)을 편성하여 확보에 노력하였다.

농기계 연구개발은 타당성 검토, 농기계 구조 개념화, 설계, 시제품 제작, 테스트, 보완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현장 테스트는 총 8회에 걸쳐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였다. 또한 새싹보리 재배 농가와 동일한 수확 조건과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분석을 통한 '농기계 연구 실증 시험포'를 조성하여 연구에 가속도를 높였다.



현장애로사항 중앙부처 건의



기술개발 벤치마킹



현장 시연회 및 품평회

농기계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성공

전국 최초로 신기종 농기계 '새싹보리전용수확기 2식(승용형 1식, 보행형 1식)' 개발에 성공하고 농업실용화재단 농기계 검증도 완료했다. 또한, 해당 기술은 특허청에 기술특허로 등록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농기계 등록을 마쳤다.

새싹보리전용수확기의 농기계 상용화 성공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 농기계(2종 5대)를 비치하여 현장에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신기종 농기계 개발로 새싹보리 재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신소득 작물 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등록증



방송보도



제품사진

농민의 이야기

2020년 7월 영광을 와룡리 서*남(만 68세) 농가는 비가림하우스 2,640㎡(약 800평)에 쑥을 재배하고 있었다. 당해 쑥 2톤가량을 수확하였으나 쑥 수매가격의 90%가 인건비로 지출되어 쑥 농사를 포기하려 하였다. 하지만 새싹보리전용수확기의 신문보도를 본 후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현장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영광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준비된 새싹보리전용수확기를 쑥 재배 현장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농가는 “2020년도와 다르게 쑥 수확 인건비가 90%이상 줄게 되었다. 2022년도에는 쑥 기계로 수확이 가능하니 재배면적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농사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농기계로 쑥 농사에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2021. 4. 9.일자 보도자료

‘영광군, 쑥 재배 포기 농가 기계화 수확으로 웃음꽃 활짝!’ 참조

담당자 소감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정재욱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한 사항을 경청하여,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도출시키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하였음. 이번 신기종 농기계 연구 개발과 같이 신소득 작목의 농기계 기술보급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됨.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주무관 유정훈

새싹보리수확기는 전무후무한 기종으로 농기계 연구개발 시발점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지자체의 예산지원과 집행부서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음.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남도장터 500억 전국 지자체 쇼핑몰 매출 1위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농산물 판매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 552억원 달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선제적·적극적인 대응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으로 변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네이버, 쿠팡 등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온라인 시장 진입이 어려운 영세 농업인, 소상공인 등의 소득 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대했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모바일 앱 구축 공산품, 농어촌 체험관광 상품까지 판매영역 확대

남도장터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지역 농업인, 소상공인 등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 및 안정적인 판로 지원으로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우수 농수산물을 1년 365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시장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남도장터 모바일 앱을 구축했으며,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 어르신 체험활동 꾸러미 및 농어촌 체험관광 상품까지 판매영역을 확대하고 라이브커머스 등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원했다.



드라이브 스루

상생장터 운영

라이브커머스 운영

지역 농특산물 전국 새벽·당일 배송을 위해 쿠팡,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온라인 B2B경매를 추진하여 유통비용 절감,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남도장터 입점업체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판매대금 先정산 서비스를 도입하여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당초 45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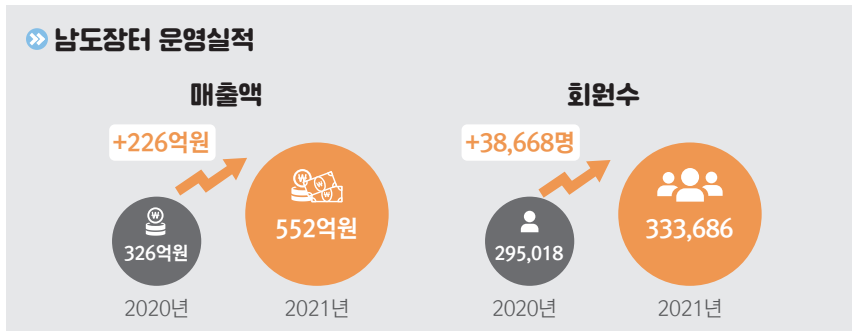
» 업무협약 체결

쿠팡 (2021.5.12.), 맥도날드 (2021.7.20.), aT, 11번가 (2021.5.18.) 등

아울러 남도장터 글로벌 판매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쇼핑몰 브링코와 제휴, 남도장터 해외 브랜드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고국배송(역직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매출액 552억원 달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 552억원을 달성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확보, 품질개선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2년간 언론기관 브랜드 대상 5회, 기관표창 3회의 수상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수상실적

- » 언론기관 브랜드 대상 수상 : 5회(2020년 1회, 2021년 4회)
-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최우수 기관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 » 2020년 제2회 우체국쇼핑 온라인 마케팅 기관표창
- » 2020년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TOP선정, 전라남도지사상 수상



담담자 소감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박일규**

남도장터는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유통 플랫폼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전국 최초! 온맘(溫-mom) 선물 보따리 풀어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급격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농어촌지역 산모들이 겪고 있는 출산·산후조리와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온맘(溫-mom) 선물 보따리*를 마련했다.

* 신생아 캠 설치,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센터 운영,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완성

신생아 학대 예방과 산후도우미의 인권을 지키는

「신생아 캠 설치」* 전국 최초

최근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건강관리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출산 가정에서는 물건이 없어지면 건강관리사가 물건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시작했고, 끊임없는 고민 끝에 출산 가정에 '신생아 캠'을 설치해보자는 해결 방안은 찾아냈다.

신생아 캠 사업은 출산 가정에 캠을 설치하여 산모가 언제든지 아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신생아 학대예방과 산후도우미의 안전장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감시를 받는다는 산후도우미의 부정적인 인식, 일부 산모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려웠었다.

그래서 산모들에게는 신생아 캠이 아이만을 대상으로 녹화하고, 산후도우미에게는 혹시나 있을 성추행이나 가정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을 때 오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그때 마침 서울에 있는 (주)모스트바이 회사와 연결이 돼 캠을 후원받게 되었다. 즉 비예산 사업으로 신생아 학대 예방과 산후도우미의 인권까지 지킬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원거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한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 전국 최초

출산 전 난임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상담을 제공해 우울감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우리 도에는 동부권(순천시)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상담센터가 동부권에 위치함에 따라 서부권 거주자 중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대면상담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하면 서부권 거주자도 대면상담을 이용할 수 있을까?

서부권 이용자를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신축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문제에 봉착하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고민 끝에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서부권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거점형 상담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장소를 찾던 중 서부권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목포시로 위치를 정했다.

이후 목포시 보건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목포시 보건소에서 흔쾌히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장소를 마련해줬다. 그 결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완료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22개 시군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인 전남은 민간산후조리원이 8개소에 불과했다. 농어촌지역 산모들은 출산을 위해 도시로 나가야 했고 조리원도 부족해 체계적인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3년 기준, 전남에서 출산한 산모 15,401명 중 절반이 넘는 8,309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광역단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였다.

2015년 서남권 해남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시작으로 2018년과 2019년 중남부권 강진에 2호점, 완도에 3호점을 구축, 2020년 광주근교권 나주에 4호점을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부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된다면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추진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병원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업포기, 사업변경을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추진이 2024년 3월로 지연되었다.

도에서는, 동부권 산모들의 조리원 이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병원 관계자를 설득하여 2022년 3월에 임시개원하였다. 또한, 이용료가 부담돼 조리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들을 위해 이용료 70%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합계 출산율 1.02명

15년 연속 광역 단위 1위 달성

신생아캠 설치 사업으로 산후도우미 아동학대를 예방하였고, 산모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으며, 산후도우미에게는 근무여건 개선 및 인권보장을 실현하였다.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구축은 서부권 임신부에게 언제든지 상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완성으로 도내 모든 지역에서 30분 이내에 조리원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산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광역 시도 최초로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 이후, 벤치마킹으로 전국 7개 시도 10개소로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산 보급되었다. 지금까지도 타 지자체의 전화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산모돌봄 온맘 보따리 프로젝트로 합계 출산율 1.02명으로 15년 연속 광역 단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22년에도 온맘(溫-mom) 선물 보따리 프로젝트는 확대하여 시행할 것이며, 우리 도 출산·산모를 위한 또 다른 선물 보따리들을 마련하여 제공 할 것이다.



신생아 캠



찾아가는 상담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산



미담사례

온맘(溫-mom) 이야기

아동학대 불안감 없애

신생아 캠 사업에 참여하는 산모들은 아동학대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장치를 전남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만족도 높아

목포시 거주 김00씨는 거리가 멀어서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못했는데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생겨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

전국에서 전화방문이 잇따라

거의 매일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최근에는 익산시 의회(의원 6명)에서 산후조리원 4호점을 방문하기도 했다.



담당자 소감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주무관 **채호승**

전국최초! 온맘(溫-mom) 선물 보따리 풀어! 프로젝트 진행으로 출산·산모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 했으며 보다 나은 정책으로 출산·산모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다.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민·관·군 협력 '해상 백신센터 한산도함' 임무 완수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물리적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섬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질병관리청 등과 협력하여
한산도함을 백신센터로 활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배를 타고 왕복 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해

섬은 평소 의료접근성이 취약하여 주민 건강 수준도 낮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코로나19 감염병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었다.

도서 지역 내 보건지소는 코로나19 예방 접종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백신 접종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만 하는데, 왕복 3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 소요되고, 기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배가 결항되기도 해 불편함이 컸다.

※ 현재는 섬지역 보건지소 모두 예방접종 기관으로 지정

이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은 접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에 섬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해상 백신센터를 추진하게 되었다.

해군 한산도함을 임시예방접종센터로 지정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 모의훈련 실시

2021년 3월 4일, 섬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도-시군 실무 회의를 실시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국방부에 섬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보관과 수송이 용이한 백신 배정, 우선 접종 대상자 확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대비한 응급헬기 배정을 요청했다.

이후 4월 1일 질병관리청, 국방부와 1차 협력 회의를 통해 안전한 백신 수송과 접종을 위한 해군함정 지원, 더 많은 섬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우선 접종 대상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4월 22일에는 진해 군항을 방문하여 해군 최초의 훈련함이자 군함 중 최대 규모의 의무실과 병상을 갖춘 한산도함을 견학하며 섬 지역 예방접종 기본계획과 임시예방접종센터 지정 절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6월 1일, 최종적으로 한산도함을 임시예방접종센터로 지정하고, 접종 대상 연령대를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결정되어 섬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접종 대상자를 조사하고, 세부 접종계획을 수립했다.

한산도함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한국전기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모의훈련을 통해 유사 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섬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었다.



합동점검 및 모의훈련

이 과정에서 섬 지역은 해무가 잦고 조류가 강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백신 관리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충격에 대응하고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주민들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한 조치방안도 마련해야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함정 내 돌출부 등에 완충제를 설치하고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휠체어, 간이침대, 담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물품을 구비했다.

해군 군함으로 이동함에 따라 물리적인 충격에서 백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합동점검을 통해 온도 유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고속단정, 상륙주정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한산도함까지 이송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상 반응 모니터링 후 하선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이상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 병원 후송을 위한 해경 헬기를 대기시키고, 한산도함도 접종지역 인근에서 1일간 정박하여 추이를 지켜보도록 했다. 마을 이장과 보건소 의료진도 접종자 상시모니터링에 협조하는 등 민·관·군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28개 섬, 681명 접종완료, 도 병원선 활용 192명 추가 접종

지역 특성상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여 건강권 보장에 기여한 사례로,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내 28개 섬 주민 681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원래 계획하고 있던 614명보다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줬다. 접종 과정에서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도 병원선 및 보건소 방문 접종팀을 활용하여 고흥군, 진도군 주민 192명을 추가로 접종했다.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이동이 불편하여 예방접종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자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 찾아와 접종을 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예방 접종을 받는 주민들 모습

담당자 소감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팀장 **최병록**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은 코로나19 접종을 위해 육지에 있는 접종기관으로 이동해 접종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어 백신접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산도함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30세 이상 주민 28개섬 681명 접종을 완료하여 소외된 섬 주민들까지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했다.

전라남도 식품의약과
주무관 **김선미**

국가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도서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

해남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시작, 해남군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최우수상**



한반도의 끝이자 시작인 해남군에
기후변화 대응 농업분야를 책임질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건의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이는 도미노처럼 식량위기, 물가상승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를 선제적으로 고민하여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체 용역을 추진하였고 해남은 전라남도가 정부에 사업을 건의할 때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유치를 준비하였다. 사업 확정전이지만 도와 정보를 공유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전국 최대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남군은 벼, 밀, 겨울배추, 고구마 등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이며 이와 함께 다양한 채소와 바나나 등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서울의 기상청, 세종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 부산의 APEC 기후센터와 함께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시설의 삼각축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컨트롤타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행정·의회·주민이 하나 되어 유치 활동 전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해남군은 행정과 의회, 농업인 그리고 일반 군민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유치를 염원했다. 해남군은 T/F를 구성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전제 실·과·소와 외부 유치지원단, 전문가 자문단으로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국회, 농식품부, 전라남도 등 관련 기관을 200회 이상 방문하여 해남군의 유치 당위성을 제시하고 농업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군의회는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 강의 개최,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 현장평가 지원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군민들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위한 범 군민 서명운동(46%, 31천명 참여)과 단체 및 개인의 유치 희망 SNS 캠페인, 릴레이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유치 희망 붐 조성에 힘을 보탰다.



유치 지원단 회의



군의회



sns 캠페인

기관, 대학, 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연구기관 집적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농업분야에 관련된 광주지방기상청,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국가농림기상센터 등 1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유치와 해남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21. 6. 광주지방기상청



2021. 3. 서울대학교



2020. 12. 전남대학교

향후 부지 확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부지 매입

국가-지자체의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협업 기반 구축

전국 최초로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은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입지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구단지의 밑그림을 그렸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의 one-stop 시스템 구축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라남도의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해남군의 고구마 연구센터,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구축 사업, 청년 농업인 임대농장 등이 연구단지 내로 입지를 결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추가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시설(온실가스 감축, 적응 연구 등)을 발굴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향후 국가 또는 전라남도 등의 관련 농업연구시설과 R&D사업 유치 시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위 치	해남 삼산면 상가리 405-5번지 일원
사업기간	2021 ~ 2024(4년)
사업규모	253,655㎡
사업비	295억원(국비 106, 도비 189)
사업내용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다목적 교육장, 시범재배시설 등

3년여의 노력 끝에 최종 대상지 선정

-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해남군은 전남 자체평가 5개 지자체(해남, 장성, 영암, 무안, 고흥), 전국 4개 시·도(충북 음성, 충남 당진, 전남 해남, 경남 고성)와의 경쟁을 통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위해 3년여 간의 노력한 성과를 이룬 셈이다.

앞으로 해남군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준비를 다지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방침이다. 대표 농군으로써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탄소 농업인증제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설원에 에너지 저감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과 농업인과 공무원, 일반 군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여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우뚝 설 것이다.

❖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농림축산식품부)

위 치	해남군 삼산면 평화리 일원
사업기간	2022 ~ 2025(4년)
사업규모	30,000㎡
사 업 비	4,079억원(국비 100%)
사업내용	정책지원부, 기후데이터부, 첨단인프라부, 홍보관



담당자 소감

해남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팀장 박상철

‘안된다, 어렵다.’라는 생각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수행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해남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주무관 이은경

적극행정을 통해 해남군에 새로운 동력을 유지한 경험으로 앞으로 맡은 업무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겠다.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과

보성600, 주민참여로 600개 마을에 600가지 색을 칠하다.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우수상

우리나라 전통풍습인 ‘두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어린이부터 어른신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보성 600’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공동체 정신 회복



민관협치의 시대, 주민 주도의 마을가꾸기로 지역공동체 회복

21세기 민관협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보성군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보성 600’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됐다.

보성군만의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보성600’ 추진

‘보성600’사업은 군민들이 직접 사업대상지를 정하고 마을을 꾸미는 사업으로 2019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읍면별 마을 특색을 살린 초화류, 수목, 소득작물 등을 식재하고, 벽화그리기 등 경관·소득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마을과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2020년 285개 마을 초화류·묘목 식재 272개, 벽화 그리기 13개 마을
2021년 272개 마을 초화류·묘목 식재 229개, 벽화 그리기 43개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주민과 관내 사회 기관단체가 협업을 통해 해결했다.

부족한 일손은 인근 마을 및 기관·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았으며, 장비 및 벽화 그리기는 개인장비
를 동원하거나, 씨앗 기증, 벽체 미장공사 무상 시공 등을 통해 해결해 사업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절감된 사업비는 특색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으로 사용됐다. 또한, 소득작물
식재 후 전량 수매를 통해 마을 공동소득 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2년간 557개 마을 2만 2천여명의 주민들이 협업과 소통을 통해 참여한 결과 더불어 함께하는 농촌마을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현장 방문, 주민의 목소리 반영 총 142건 건의사항 111건, 군수 현장지시 31건	 우리 동네 홍보단 구성 12개 읍면, 542명	 2년간 총 474회 활동 방송 9, 언론보도 203, SNS 239, 기타 23
---	---	--

주민들은 마을별 사업내용과 시기, 방법, 실행, 사후관리까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해 군정의 주체가 민간임을 인식하였다. 행정에서는 사업 컨설팅, 사업비 집행 등을 담당하며 생소한 민간 주도 사업이 보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군민문화운동 운영위원회와 행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민간 및 행정에서 우리동네 홍보단을 운영해 민간에서는 12개 읍면 542명을 구성하여 239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에서는 235건(언론보도 203, 방송 9, 기타 23)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보성600을 통해 변화하는 마을을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생거 복내 추진단 자문회의

마을 홍보반

조성면 덕촌마을 사업 시행

주인의식을 갖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 가꾸기

기존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로 지역개발, 건설 분야 중심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꽃심기, 나무심기 등에 마을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았다. 또한, 관 주도의 행정에 익숙한 군민들에게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보성군 군민문화운동 운영위원회와 협업하여 주인의식 함양운동을 통해 군민에게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본격적인 마을가꾸기 추진을 위해선 주민들의 일손이 무엇보다 필요했는데 보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일손 부족은 인근 마을끼리 협력하거나, 새마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묘목, 초화류 식재 시 필요한 조경기술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전문가를 초빙해 마을 주민에게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해결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도한 마을가꾸기를 통해 2년간 약 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었으며, '우리동네 우리가' 사업을 통한 '클린보성 600 우리동네 가꾸기 환경정화 릴레이'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참여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0년 142백만원 2021년 136백만원 (산출식=마을수*100천원*5명)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가별 건설인력(인건비) 참고

지역 화훼농가를 통한 꽃과 수목 구입으로 약 22억5천4백만원이 시중에 유통됐고 소규모 장비 임차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라남도에서는 '보성600' 사업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는 '아름다운 마을' 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전남, 전북 일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 등 방문이 이어졌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참여 연계사업을 통해 '우리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우리 동네 쓰레기 우리가 줍는다' 등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보성600사업 주민 안내

부족한 일손 돕기

기술지도 및 컨설팅

담당자 소감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 정 동 원	업무 담당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마을이 활기를 띠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보성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에 힘이 났습니다.
보성군 웅치면 주무관 오 지 현	600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합동해서 마을을 생기 있게 바뀌어 뿌듯하고, 해피웅치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마을주민	마을 최고령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잇고 살았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목포시 건강증진과

K-방역의 출발지 목포시, 현장행정으로 시민 안전 보장!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우수상**

전국 최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외국인 통역 전담인력 배치, 코로나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민원에 대비한 콜센터 확대 운영, 이상반응관리팀 신설 등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국 최초 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민接种의 필요성이 대두 되던 시기, 우리나라에 3월부터 도입 되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위해서는 초저온 냉동고를 구비한 예방접종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백신접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목포시의회, 목포의사회, 대한간호사회, 전남도 간호사회, 목포소방서, 목포경찰서,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등 지역협의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예방접종센터 설치 지침을 토대로 전국 최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였다.

전국 최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로 우리시는 중앙안전대책본부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 되었고, 예방접종센터 개소 전 전남 최초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참관한 가운데 접종센터 설치 노하우를 전수하였으며, 전국 보건소(부산 동구 보건소 등 50여개소)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목포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접종률을 높여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전국민(18세~49세)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됨에 따라 급증하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외국인(선원) 확진자 발생 후 n차 감염 및 델타변이와 돌파감염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접종이 필요했다.

지역내 외국인들의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통역 전담인력(영어, 중국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배치하고, 예진기록부 작성, 이상반응 관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30세 이상 미등록 외국인에게는 안센 접종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접종을 독려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접종 시 전용노선을 확보하여 내국인과의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민·관이 협력해 외국인 집단 사업장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백신접종을 위해 선제적 행정조치를 취했다.



외국인 전용

통역지원 안내

안센접종 전용로

이상반응 관찰

백신 접종 본격화, 급증하는 상담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방접종 상담 콜센터 확대·운영

아울러, 전국민(18~49세)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접종 예약전화와 이상반응 신청 및 상담 민원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방접종 상담 콜센터를 기존 5회선에서 14회선으로 확대·운영하였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내실있는 상담을 위해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팀'을 신설하여 이상반응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스템 관리 등록도 적극 시행하였다.



예방접종 콜센터 확대 운영

이상반응관리팀 신설

외국인 예방접종을 위해 관내 이주 여성들을 고용해 외국인 전담 통역인력으로 배치함에 따라, 이주 여성들의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주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접종 후 이상반응 까지 직접 살펴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을 대하는 자세는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담당자 소감 ”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 **김수연**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한 이래 같이 수고해주신 의료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분들, 소방대원, 군부대 행정지원 인력 등 일상회복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건강을 위해 늘 노력하겠다.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주무관 **민보영**

처음 예방접종센터를 개소 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나 정보가 부족하여 막막하였으나 4만여 건의 접종을 마치고 안전하게 종료되어 감회가 새롭고 방역원의 일원으로서 보람되고 값진 경험이었다.

곡성군 행정과(미래교육재단)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다는 곡성 꿈놀자 학교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론 우수상



학령인구 유출 예방을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숲·생태교육 ‘꿈놀자 학교’ 운영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

* **꿈놀자 학교**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스스로 꿈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학교 밖 배움터

학령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곡성군과 교육지원청이 손을 맞잡다

곡성군은 교육문제로 인한 학령기 인구 유출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는 등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인구정책이 필요했고 그 해법으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8년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교육을 내걸고 곡성군과 교육지원청이 손을 맞잡았다. 지역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교육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듬해에는 임시기구 형태의 미래교육협력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교육 협력사업을 시작했다.

민·관·학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곡성교육을 학교교육에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배우며 성장하는 학습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년 12월 민·관·학 연합형 독립기관인 미래교육재단 출범에 이르렀다. 학교 교과서의 배움이 담장을 넘어 마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군과 교육지원청, 지역을 연결하며 곡성 전역을 학교 밖 배움터 삼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가는 지역특화교육 “꿈놀자학교”를 시작하게 됐다.



지역소멸위기 곡성

곡성 인구수 변동 추이



군·교육지원청 기관장 만남(월1회)



2020. 12.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출범식



곡성군 미래교육재단(군·교육지원청·민간)

관내 초·중학교 교과연계 숲 생태교육 운영

제월섬에서는 총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밧줄로 나무에 오르는 트리클라이밍, 밧줄을 통해 자연을 상상하고 표현해보는 밧줄놀이터, 지도를 읽고 숲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오리엔티어링, 자연물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생태자연미술 등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곡성군 관내 초등학교 수업으로 편성되어 연중 100회 이상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숲교육이 학교 수업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군과 교육지원청, 재단, 교사, 숲교육 활동가가 연구모임을 통해 학년별 성취기준에 맞게 활동 내용을 재구성한 숲교육 자료집 제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올해는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던 숲교육을 유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과도 연계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연결되는 지역특화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숲교육은 학교 수업 뿐 아니라 주말에도 가족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팝업 밧줄놀이터 상상파티, 숲 인문학과 나무집 짓기, 트리클라이밍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곡성 뿐 아니라 타 지역 학부모들도 제월섬을 많이 찾아오고 있다.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며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숲 교육 ‘꿈놀자 학교’ 개교

곡성은 전체면적의 72%가 숲으로 이뤄져 있고, 숲을 테두리 삼아 그 안에 섬진강과 보성강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곡성군은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며 창의성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우며 행복하게 자라는 교육으로 숲교육을 착안했다. 아이들이 숲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곡성군 입면에 위치한 동섬을 발견했다. 군 하천부서의 협조를 받아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게 정비하고, 마을명을 본따서 제월섬이라 부르기로 했다.



미술관에서 놀자



밧줄놀이터 & 상상파티



생태자연미술



가족과 함께하는 제월섬 나무집짓기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꿈놀자 관현악단) 운영

곡성군에서는 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군립 청소년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 전체 중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곡성·석곡·옥과 3개 권역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하모니를 맞춰가며 음악을 통해 협력, 소통, 배려하는 공동체성을 키우고 있다. 다른 지역의 관현악단과 달리 곡성군에서는 배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오디션 없이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군립 청소년 관현악단의 지도진은 외부 강사가 아닌 각 학교 음악교사와 음악을 전공한 교장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어 군청, 교육지원청, 학교, 재단이 함께 키우는 대표 사업이자 곡성을 대표하는 청소년 예술단체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군립 청소년 관현악단(명칭: 곡성꿈놀자 관현악단)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의 필요성

서로 다른 두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남과 소통이 중요하다. 곡성군은 군과 교육지원청 양 기관장이 매월 1회 만남의 날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실과장 및 팀장들 또한 매주 1회 협의회와 교육지원청 주간업무를 통해 정보공유, 교육사안 협의, 독서토론 등 의견을 함께 나누며 협력기반을 강화해 가고 있다.

미래교육재단-학교-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형성

미래교육재단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육을 한 곳으로 집중하며 관-학교-마을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써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마련했다. 또한, 꿈놀자학교의 숲교육은 재단과 학교, 마을의 협력체계를 통해 곡성형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청정한 자연환경 안에서 이뤄지는 질 높은 숲·생태교육은 농촌유학 등 도시 가족들을 곡성으로 찾아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숲·생태수업의 마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트리클라이밍 지도자, 생태놀이 지도자, 생태텃밭교육농 등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지역민에게는 보조강사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강사로 자립하여 교육 일자리와 연계 확대할 계획이다.

미담사례

꿈놀자 학교 이야기

제월섬 인근 마을 주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동섬이 꿈놀자학교 숲교육을 통해 제월섬으로 변화하며 곡성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제월섬 환경 정비(풀베기, 쓰레기 줍기, 연중 숲 관리 등)를 위해 마을 주민을 고용해 일자리까지 얻게 되었다.

학교 교사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협력하는 법이나 생태감수성 등을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는데, 숲에 직접 나와 다양한 활동을 해보며 창의적 사고도 기르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생태친화적 교육으로 교사로서도 만족도가 크다.

학부모

주말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다. 문화소외 지역인데, 예술을 접할 기회를 많이 줘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담당자 소감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팀장 김현경

모든 아이들이 갖고있는 재능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꿈놀자학교를 교육기관과 협력하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십년쯤 후 곡성에서 성장한 아이가 꿈놀자학교를 통해 자기 진로를 찾아 행복하게 자기 삶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주무관 나현주

학교 공간에 지역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군·교육지원청·학교·재단·지역민들이 함께 협치의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아이들의 의견대로 잘 만들어져서 기뻐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목포시 건축행정과

공동주택 관리 선두주자 목포시, 아파트 관리의 기준이 되다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장려상**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4대 보험료 횡령 민원 발생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 민사로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지자체가 앞장서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기반 마련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지자체 개입의 규정과 제도의 부재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입주민에게 청구하고
매년 2회(4월/7월) 정산하는데 이때 과다 부과된 것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4대 보험료 횡령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 민사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었고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지자체 개입의 명확한 규정과 제도는 없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서로간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난항을 겪게 되었고,
지자체가 앞장서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시스템을 확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개발, 매뉴얼 작성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

우리는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에 자체 정산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협조 요청
하였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정산을 할 역량이 부족하였고 주택관리업자는 초과
징수액이 사회보험공단의 지원금이라는 주장과 산재보험료 보험 미처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정산을 반대하였다. 또한 수익감소 등을 이유로 자체 정산을 기피하기도
하였다.

사회보험공단에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지 않았고,
우천시 추진사항에 대한 불만(주택관리업자 처벌요구, 담당자 형사고발 등) 민원제기 등으로
담당공무원은 사기가 저하 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 관리업체
수익감소 등 이해관계

담당 공무원
언론보도, 형사고발 등 으로
사기저하

사회보험공단
개인정보 등 문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역량부족



하지만 우리는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아파트와 주택관리업자 4대 보험료 청구, 납부, 납부차액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분양아파트와 별도로 임대아파트 사업자·주택임대관리업자
대표 등도 설득하여 정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근로자 4대 보험료 전수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근거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에서 징수한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목포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개발,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4대 보험료 환상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매뉴얼

목 포 시
(건축행정과)

매뉴얼 작성 및 개선방안 검토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개발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개발

정산금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다

아파트별 주택관리업자와 갈등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우리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해 반환조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6억8천6백만원의 초과징수액 (9개 업체, 70개 단지 조사)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택관리사 추가 채용·공동주택 지도팀 신설·공동주택 감사업무 추진 전문인력 채용계획안을 마련 하였고, 4대 보험료 등의 「관리 매뉴얼」을 작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여 임원진 역할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 컨설팅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담당자 소감

목포시 안전총괄과
팀장 **민경중**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인 협의와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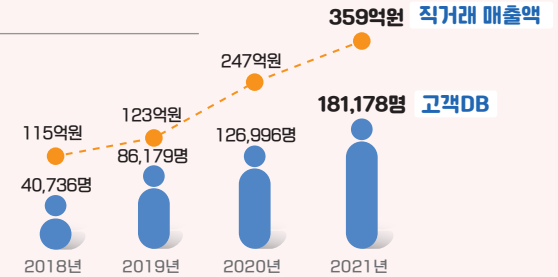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고정고객 DB구축과 온라인 판매로 농가소득 날개달다!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장려상**

고객DB 구축활용으로
직거래 매출 향상



고정고객 DB구축을 통해 고객확보 및 관리에 나서 ‘전국최초’ 생화 온라인 직거래 판매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오프라인→온라인)로 인한 고정 판매처 감소로 농업인 소득은 불안정 해졌는데 농업인의 역량으로는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감한 화훼농가는 가격폭락과 빈번한 경매 유찰로 폐업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지역농산물 구입고객 DB(DataBase) 구축·활용을 통해 소비자 기대에 부응한 온라인(택배)판매로 농특산물 판로 개척에 나섰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공공급식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도모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온라인 판매 및 언택트 홍보 마케팅을 추진했다. 먼저, 청자골 강진 화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화훼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최초로 생화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추진했다. 강진군과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초록민음’, ‘남도장터’를 이용해 온라인 택배 직거래 판매 신시장을 개척하고, 우체국, 신세계몰 등 대형 쇼핑몰과 연계해 특판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아울러, TV, 지하철, 대도시 버스광고, SNS, 파워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농산물 판촉·홍보에 나섰다.

‘강진 묵은지’ 상품화, ‘강진쌀귀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강진군만의 차별화된 특산물 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했다. ‘맛의 1번지’ 강진군의 명성에 부응하는 ‘강진 묵은지’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쌀귀리를 활용해 지역특화 식품을 개발·판매하고 ‘강진쌀귀리’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다.

온라인 판매 신시장 개척

공판장, 도소매 등 오프라인 판매에 익숙한 농업인들이 단기간에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위한 누리집을 제작하고 관리하기에는 농업인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 군에서는 비대면 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공영홈쇼핑 등 TV 홈쇼핑과 연계해 방송판매를 지원하고, 대형 쇼핑몰과 연계한 온라인 특판 행사를 통해 장미, 농특산물 등을 판매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입점을 추진해 수출 다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 우수정책 활용 전

영세,중소농 등 판로 부재
공판장, 도소매 의존(수취가 저하)
온라인 진출 역량미흡, 한계
신규 진입장벽슈, 사업포기



» 우수정책 활용 후

고정 판매망 구축 안전소득원 확보
고정고객DB 등 직거래(마진 최소화)
홈페이지 구축 고객DB 연계 판매
초록민음·남도장터 등 온라인 판매

농특산물 구매고객DB 확대를 통해 판매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했으며, 직거래 및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한 판매, 차별화된 특산품 개발·판매로 직거래 매출액을 당초 목표액 보다 초과 달성했다.

고객 DB: 181천명 (초록민음151, 화훼 25, 특산품 5)

※ 2018년) 40,736명, 2019년) 86,179명, 2020년) 126,996명

직거래 매출액: 359억 원 (2021. 12월 말) * 2021년 목표액 350억 원 초과달성

※ 2018년) 115억 원, 2019년) 123억 원, 2020년) 247억 원 매출 지속상승

» 온라인 판매 및 언택트 홍보 마케팅 추진

1. 전국 최초 생화 직거래판매로 코로나 이전 대비 1.5~2배 소득향상 / 90만본, 18억 원
2. 온라인 택배 직거래 판매(초록민음, 남도장터 등): 46억 원
3. 집중육성품목(강진쌀귀리·묵은지) 온라인 직거래 판매: 14.5억 원
4. 대형 쇼핑몰(우체국, 신세계몰 등) 연계 특판행사 추진: 3회 / 2억 원

» 차별화된 특산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1. 강진 특산품 개발 및 판매
묵은지: ‘강진 묵은지’ 상품화 및 브랜드화(BI 개발 등) / 28개 업체 영업등록
쌀귀리 가공식품: 12개 업체 / 17개 품목(쌀귀리 고추장, 선식 등)
2. 강진 특산품 판매 실적: 14.5억 원(묵은지 2.5억 / 쌀귀리 12억)



“ 담당자 소감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과장 송승언

코로나-19로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강진군은 구매고객 DB구축 기반을 활용한 온라인 택배 판매(초록민음, 남도장터 등)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팀장 서동순

전남 화훼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강진군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전국 최초 생화 직거래 판매(민·관·군 협력)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했으며, 전국 화훼 공판장 가격안정 등 신시장 개척에 성공해 전국에 모범사례가 됐습니다.

무안군 건설교통과

중앙부처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장려상**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시행계획 변경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사업비 증액 및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공청회 실시

무안군은 2019년 농경지 164ha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3개소, 배수로 12조, 복토 37.2ha를 정비하는 금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2020년 5월 6일 사업 착수 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발주(사업비 14,100백만원, 국비 100%)와 함께 사업 착수를 위하여 지역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배수개선사업 지침에 의한 정비계획과 달리 지역주민은 배수로 전체 정비, 특히 금산지구 내 중앙배수로와 외측 유입수에 대한 배수로를 최우선으로 정비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증액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수리분석을 재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배수펌프장을 없애려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공사중지와 사업비 반납 검토로 사업중단 위기-

이에 따라, 2020년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수로 구역별 수리분석을 재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배수펌프장 3개소를 감하고 배수로 5개소를 증설하는 총사업비 20억 증액조정 요구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본사 총사업비 심의팀에서 우리군 조정안을 검토해 보고 전면 재설계와 다름없는 보완을 요구하여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2020년 7월 6일 농식품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기본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배수개선 정비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배수펌프장을 없애는 것은 배수개선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일반 배수로정비 사업이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정비할 사업이라며 공사중지와 사업비 반납을 검토하고 관심지구로 지정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려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실망하지 않고 분석자료를 토대로 끊임없는 설득과 협의 끝에 시행계획 변경 승인 얻어내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분석자료를 수차례 설명하여 2020년 7월 16일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담당 사무관과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업무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며 사업비 증액의 당위성과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사업 기초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재검증한 변경(안)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조정심의(안)을 검증 받기로 협의하였다.

무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여 배수로 지선별 수리유역과 수리분석 검증 작업에 돌입하여 우기철 배수로별 유수 흐름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침수원인을 분석한 결과 외부 유입수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으며, 중앙 배수로를 정비할 경우 당초 계획인 연결 배수로의 단면 축소가 가능하여 단면 조정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2개 노선을 증설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안을 토대로 2020년 10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총사업비를 조정하기로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2021년 4월 20일 배수개선사업 총사업비 조정, 실무검토 회의를 실시하고 2021년 5월 13일 제 1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와 함께 2021년 6월 23일 무안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국비 28.7억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는 소통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루어낸 결실이었다.

주민공청회 결과보고서

구분	내용
1. 공청회 목적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2. 공청회 일시	2020. 5. 6.
3. 공청회 장소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1가
4. 공청회 참석자	무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주민대표, 공무원
5. 공청회 의제	배수개선사업 추진 현황, 주민 의견 수렴, 질의응답
6. 공청회 결과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호응도 높음, 중앙배수로 정비 필요성 제기

주민공청회 결과보고서

출장보고서(총사업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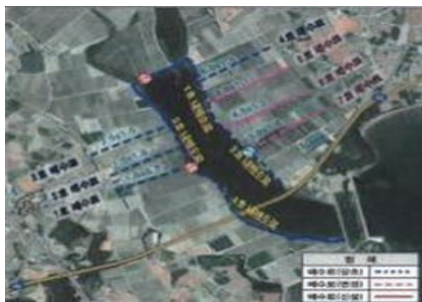
구분	내용
1. 출장 목적	배수개선사업 총사업비 조정
2. 출장 일시	2020. 10. 27.
3. 출장 장소	농림축산식품부
4. 출장 참석자	무안군, 농림축산식품부
5. 출장 의제	배수개선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조정 필요성 제기
6. 출장 결과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이해도 높음, 사업비 조정 필요성 인정

출장보고서(총사업비 변경)

공문(총사업비 심의결과 통보)

구분	내용
1. 공문 목적	배수개선사업 총사업비 조정 통보
2. 공문 일시	2021. 6. 23.
3. 공문 장소	무안군청
4. 공문 참석자	무안군, 농림축산식품부
5. 공문 의제	배수개선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6. 공문 결과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이해도 높음, 사업비 조정 필요성 인정

공문(총사업비 심의결과 통보)



배수계획(당초)



배수계획(변경)

배수개선사업비 증액승인,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중앙배수로 및 외측 유입 배수로 정비도 동시해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수개선사업 사업비 28.7억 원 증액 승인을 얻어 우기철 이전에 중앙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 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앙배수로 및 외측 유입 배수로 정비도 동시에 해결했다.



중앙배수로(시공전)



중앙배수로(시공후)

“

담당자 소감

무안군 건설교통과
팀장 **나재철**

지역주민들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답보 상태에 놓일 위기였으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무안군 건설교통과
주무관 **조송훈**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보다 나은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여수시 기후생태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지침 수립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장려상**



개발지역의 대규모 숙박시설 등의 증가로 인해 오수처리 관련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시공부터 운영관리까지 우리시에 적합한 하수관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량 제품을 근절하고 수질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여수시에 적합한 하수관리 대응책 마련 "여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수립

돌산 펜션 오수처리 관련 문제점이 언론에 지적되고 개발지역의 대규모 숙박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가 필요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공부터 운영관리까지 우리 시에 적합한 하수관리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우선 돌산·화양지구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2021. 2. 22. ~ 5. 31.)을 실시했다.

* 최근 3년간 준공된 20㎡/일 이상의 대규모 시설 점검

특별점검 실시 중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업무혁신 보고를 통해 시장 지시사항으로 본격적인 지침 마련에 나섰다.

최초로 지침을 수립했던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가평군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시청 하수처리 관련 부서(기후생태과, 하수도과, 허가민원과)와 간담회를 실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안)」을 소개하고, 하수처리 설계·시공·관리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4개업체 대표 모두 지침 수립에 동의했다.

이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여수시 개인하수처리 통합관리 T/F팀’을 구성하고 관련부서*간 지침(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관련부서) 기후생태과, 총무과, 도시계획과, 하가민원과, 하수도과, 수산경영과

또한, 현 「하수도법」에는 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조달청 우수제품 (오수처리시설) 제작 공정 확인을 위해 관련 공장도 방문했다.

건축사회 등을 포함한 관련 업체 간담회, 변호사 자문, T/F팀 회의 등을 통해 지침(안)을 세밀 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여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개인하수처리 통합관리 T/F팀 회의



설계·시공 지침 수립 간담회 (1차, 시공업체 대표 참석)



설계·시공 지침 수립 간담회 (2차, 건축사회·시공업체 대표 참석)



(주)후소엔지니어링 공장 방문 (시설 제작 공정 확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설명회 개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설명회(질의응답)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이 마련되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한 건축사회 및 건축주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며, 제품 품질 향상으로 2차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민원발생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라남도 최초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수립으로 주변 시·군 행정정책의 모범사례가 됐다.

미담사례

여수 건축사회

최초 간담회 참여 시 규제 강화로

판단하여 반발하였으나, 기후생태과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의견 경청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협조의를 피력했다.



담당자 소감

여수시 기후생태과 팀장 **최다윤**

우리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관광지역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FDA청정해역인 가막만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수질 보호를 위한 관광개발지역의 오수관리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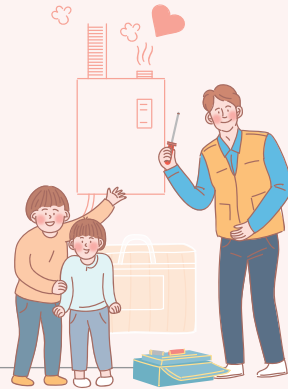
여수시 기후생태과 주무관 **양승재**

본 지침을 건축주와 설계·시공업체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질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수질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선도적 행정을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완도읍 LPG배관망 사업 취약계층 보일러 연계 교체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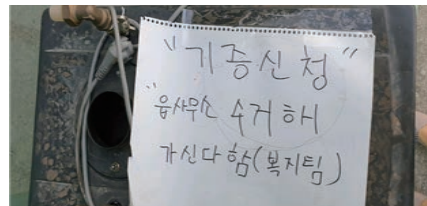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 시행으로 기존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함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기름보일러를 수거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의 노후 보일러를 교체해 복지 체감온도 상승

LPG 배관망 사업으로 멸절된 기름보일러를 폐기해야 해

완도군은 위치상 제주도 다음 최남단으로 속하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항시 에너지 보급이 느린 편에 속하였고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름 보일러가 주된 난방 시설이었다. 한번 교체 하면 수리가 불가 할 때까지 사용하고 교체시 비용이 70~80만원 가량 지출되어 취약계층은 오래된 보일러를 헐사리 바꾸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최근 완도읍 LPG배관망 사업을 통해 완도 내에 저가의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지는 반가운 일이 생겼다. 완도읍 LPG배관망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스보일러로 교체가 필연적인 상황으로 기존 사용하던 기름보일러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보일러 교체를 진행하던 빌라의 주민이 최근 교체한 보일러를 그냥 버리기에 아깝다며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완도읍에 문의를 하였고 고물상에 팔거나 폐기처분하기에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는 분명하였다.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 상태였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보일러에 대해서 기부를 받아 LPG배관망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는 지역의 취약계층에 보일러를 교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용 가능한 기름보일러를 기부받아, 취약계층 가정의 노후 보일러 교체해줘 주민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보일러 재활용으로 환경보호까지

‘완도읍 LPG배관망사업, 취약계층 보일러 연계 교체’라는 타이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사업의 흐름은 완도읍에서 진행하는 착한기부와 접목하여 LPG배관망 사업으로 발생한 기름 보일러를 기부 받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 하는 것이다.

보일러 기부 독려 방법으로 2,000여명의 회원으로 있는 ‘으랏차차! 완도읍’밴드와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를 하였다. 홍보의 효과는 생각보다 좋아 주민 50여명이 기부 의사를 밝혔다. 긍정적인 시작이었으나 이 사업의 첫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기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의 집에 보일러를 수거하러 갔으나 내구연한이 오래 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즉시, 구입 3년 이내 사용가능한 보일러로 기준을 잡고 재홍보를 실시했다. 지속적으로 보일러 상태를 확인하며 10대의 보일러를 확보하고 교체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보일러 해체와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여 완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능 의사를 문자 혼쾌히 승낙을 해 민·관이 협력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완도읍 직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기부 받은 보일러를 해체하여 수거하였으며 보일러 교체 대상자의 집에 설치까지 즉시 해결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2차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교체 대상자의 주택은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 대부분이라 무거운 보일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직원들이 들고 옮기게 되어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게 되었다. 또 대부분 보일러실이 비좁아 설치에 어려움이 컸지만 취약계층 10가구에 무사히 보일러를 교체 할 수 있었다.

총 4개월간 진행한 완도읍 LPG배관망 사업에 따른 취약계층 보일러 연계 교체사업은 총 10가구를 발굴하여 기름보일러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완도읍 사무소와 주민들이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하는 이상적인 민·관 협업의 방향성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완도읍에서 시행하는 착한기부 시책과 연계되어 기부된 보일러 등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행정의 신뢰성까지 높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폐기 예정 보일러를 기부 받아 취약계층의 노후 된 보일러 교체까지 진행하는 저예산 고효율 복지 정책을 펼치고 보일러를 재활용하여 환경보호까지 이룬 최고의 성과를 냈다.



민관협력 사업추진



취약계층 보일러 연계 교체 사업



보일러 교체



취약계층의 착한 기부 운동

구례군 기획예산실

전국 최초 국가지정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부문 **장려상**



수려한 경관과 독특한 건축기법으로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오산 사성암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성암 인근의 사유지 개발행위는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례군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500m→100m),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가 명승 오산 사성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성암 인근 사유지 개발행위 불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오산 사성암은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 구례군의 대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었다. 반면, 사성암 인근 주민들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으로 사성암 인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선 관련 법령의 재검토가 필요했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직선거리 500m 구간까지 사유지 개발행위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담당자 소감

완도군 완도읍
팀 장 위주 환
주무관 김금 행

보일러 기부, 수거부터 교체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제품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와 함께 저예산 고효율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다른 시군 단위 LPG배관망사업 추진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인 사유지가 91% 차지 오산 사성암은 보존지역의 가치보다 사성암에서 바라보는 섬진강과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인정받아 명승 지정

» 일괄적인 기준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아, 민관이 협력하여 규제 개선 필요성 공론화

‘명승’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보다 큰 관광명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구례군은 깊은 고민을 시작했다.

오산 사성암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가치 있다기 보다는, 사성암에서 널리 바라보이는 섬진강과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명승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는 개인 사유지가 91%를 차지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 이에, 구례군에서는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거리규제를 500m에서 100m로 축소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구례군만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완전 해제가 아닌 보호구역 축소로 가닥을 잡고 문화재청을 적극 설득한 결과, 전국 최초로 모든 명승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거리 규제를 500m에서 100m로 축소하게 됐다.

» 추진과정

- 규제개선 필요성 공론화, 문척면지역발전혁신협의회 의견수렴
- 민관협력기구 군·읍면 지역발전혁신협의회(9개소) 공동과제로 선정
- 구례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 추진위원회(25명) 구성
-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2020.6.~8. / 6,000여 명
- 군의회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25개소) 협조 방문: 2020. 6.
-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 요구 진정서 제출: 2020. 9. 24.
- 군, 추진위원회 임원진이 함께 문화재청 방문(10. 5./ 11. 4.) 동행
- 문화재청 요구에 따른 주민의견 재수렴 및 의견회신: 2020. 11.~12.
- 문화재청 현지조사 계획에 따른 대응 대책회의: 2021. 2. 15.
- 문화재청 현지조사단 대응 군민 현장대화: 2021. 2. 16.
- 사성암 앞, 읍면 대표단 80여명 참여, 요구사항 전달

- 군수 문화재청 방문(명승지정 해제 건의): 2021. 3. 1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정안 제출을 위한 추진위와의 간담회: 4회
- 문화재청에 오산사성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정안 제출: 2021. 4. 22.
- 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 고시(제2021-70호): 2021. 6. 9.

민관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 고시를 이끌어내, 자칫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오산 사성암 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사유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오산 사성암 개인 사유지 개발뿐 아니라 구례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오산 케이블카 사업도 다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로 관광개발과 사유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직접효과 530억원, 간접효과 250억원, 일자리 창출 28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자 소감

구례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류 효 숙**
구례군 기획예산실
주무관 **김 단 비**

지역의 큰 쟁점이었던 사성암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문제를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도민을 웃게하는 행복한 변화



Chapter

02 사회혁신 우수사례

찾아가는 위기가정 반려식물 보급사업, 움직이는 나눔 냉장고로 밀반찬까지

해남천 살리기 프로젝트 '미생물발효 흙공아! 해남천을 부탁해'

종이팩 자원순환 챌린지 <유익한캠페인>

노인&장애우 협동 치유농업 활동

음식으로 소통하기 “다양한 밥상나눔&cooking스토리”

세대공감, 행복나눔 배달천사

주민 주체의 조직 활성화를 통한 나눔공동체 문화 확산 프로젝트! 'The(더) 나눔'

광양시

찾아가는 위기가정 반려식물 보급

사랑나눔식료품 꾸러미전달, 밑반찬지원사업 추진

★ 2021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선정



중마동은 전남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과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복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민관협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위기가정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

민·관(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마동)이 상호 협력하여 중마동 관내 위기가정 100가구를 발굴 그 가정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업을 찾던 중 식물이 주는 치유에너지에 주안점을 뒀다. 처음엔 중마동장님이 승진 축하 화분으로 들어온 화분 50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협의체에 기증하면서 대상 가정에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대상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2차로 9월에 반려식물 안스리움을 구입하여 중마동 관내 위기가정 50세대에 전달하게 되었고, 그 이후 홍보에 힘입어 개인 및 단체에서 행사개최(미술전, 각종 개업식, 이·취임 행사) 후 기증한 식물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친 위기가정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 주는 뜻 깊은 사업이었다.



위기가정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



시민 후원연계 참여

움직이는 나눔냉장고 운영

사랑나눔 식료품 꾸러미 전달사업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중마동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나눔 냉장고를 요일별 찾아가는 나눔냉장고로 변경하여 운영(중마동+협의체 위원 28명, 4개조 편성 방문 전달) 함으로써 다양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개인·단체에서 기증한 물품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다양한 공모사업에 직접 도전하여 선정되면서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부해 주신 후원업체 9개소에 대하여 감사장과 「나눔가게」 현판을 부착하여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후원업체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금 광 식 당	매주 수요일, 밑반찬 5세트	5세대(실직, 장애인, 독거노인 등)
금 정	월 2회(화요일), 불고기정식 3세트	3세대(실직,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이 춘 봉 치 킨	매주 화요일, 치킨 3마리	3세대(조손가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옛 장 터 국 밥	월 2회(화요일), 해장국 5인분	5세대(실직, 장애인, 독거노인 등)
금 광 식 당	매주 수요일, 밑반찬 5세트	5세대(실직, 장애인, 독거노인 등)
왕 창 국 밥	매주 수요일, 국밥 60인분	30세대(실직, 장애인, 독거노인 등)
광양YWCA 푸드뱅크	월 2회(목요일), 빵 및 간편식품 10세트	10세대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광 양 제 빵 소	매주 금요일, 빵 5세트	5세대(한부모, 다자녀, 조손가정 등)
돈 먹 자	월 1회, 이베리코돼지고기 20kg	15세대(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정 나누미 밀반찬 지원사업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장서 공모·후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주는 나눔사업을 실천하여, 지역복지공동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 중마동 인구 57,133명, 공적복지대상 1,063명, 복지사각지대 1,466명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로 혼자 사는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30가구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밀반찬을 직접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가정 방문 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kf-94 마스크 전달 및 광양시 재난지원금 신청 대행, 무료로 이불세탁사업 연계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였다.



찾아가는 나눔 활동을 통해 기부활성화 유도

2021년을 시작으로 더 많은 나눔 후원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하는 요일별 찾아가는 나눔 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기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 확산사업 5개사업, 1,500명 후원 연계

- ▶ 찾아가는 희망나눔데이 운영(783세대), 소확행 밀반찬지원사업(12세대), 전남 사회혁신공모사업(19백만원, 560세대), 찾아가는 취약계층 이불세탁사업(100세대), 함께하는 이웃 반려식물 보급사업(45세대) 등



담당자 소감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박길오**

2021년은 28명의 협의체 위원과 대상자 발굴 및 후원 연계를 위하여 매주 쉬지 않고 활동한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2022년도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이정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뛰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해남군

해남천 살리기 프로젝트 '미생물발효 흙공아! 해남천을 부탁해'

★ 2021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선정



환경오염과 무관심으로 소외받고 있던 해남천이 지역사회 환경지킴이들의 'EM 흙공 던지기', '플로깅' 활동과 환경교육을 통해 깨끗한 해남천이 되어 주민들 품으로 돌아옴

〈EM〉 자연상태 내 많은 미생물 중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하여 배양한 미생물 복합체(Effective Microorganisms)
〈플로깅〉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하여,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위

기후위기, 이제 더 이상 다른 대륙,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공기도 물도 맑은 땅끝 해남, 과연 언제까지나 맑기만 할 수 있을까?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다른 대륙,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니게 됐다.

2020년 긴 가을장마 직후 가뭄이 지속되었다. 기후변화는 먼 곳의 이야기이려니 했지만 기후 위기가 바로 내 앞에 와 있었다. 더 잦아진 태풍, 더 무더운 여름, 그리고 더 추운 겨울. 농민은 농민대로 어민은 어민대로 그리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해남군민 전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맞는다.

거대한 기후위기 앞에 한 사람의 실천은 보잘 것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열 명이 되고 백 명이 된다면 어떨까?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조바심이 자연스럽게 해남천으로 눈을 돌리게 하였다. 들성들성 이끼가 끼고, 악취가 나는 해남천을 돌보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다.



해남천의 비온 뒤 우수관로



해남천의 잡풀



하천 이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2019년 7월 5일, 해남천 해리교 아래서 '치맥과 함께하는 초여름밤 천변 작은 음악회'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열었다. 그 날 아이들이 해남천에 들어가 이른 물놀이를 하며 보낸 웃음소리로 해남천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곳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의 미래가 시작하는 곳 해남천. 그러나 그 다음 해 가을과 겨울의 긴 가뭄으로 유수량이 적어지고 해남천은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 더러운 이끼와 악취로 해남천 산책로를 걷는 게 힘들었다.

그 무렵 EM(effective-microorganism)과 황토가 하천정화와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알게 되었는데, 이미 많은 단체가 EM흙공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람 그 자체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작은 진실 앞에 다행히 해남읍의 중심을 관통하는 해남천 주변엔 4~5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고 해남천에 다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해남 사람들이 있었다. 기후변화와 환경 그리고 해남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협업하여 주민실천단을 조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모집했다.

해남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변 기관단체들과 인근 주민들이 모여 기후위기의 원인과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생각을 공유했고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들도 함께 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EM 흙공을 빚었고 발효시킨 흙공을 "EM 흙공아! 해남천을 부탁해~"라고 외치며 해남천에 던졌다. 그 흙공들은 해남천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해남 군민들 마음속에 경종을 울렸을 것이다.



흙공만들기



흙공던지기 행사



흙공던지기 행사

마을공동체를 넘어 지역공동체로 나아가자

물속으로 던져진 EM흙공은 해남천을 깨끗하게 하였고, 사람들 마음 속으로 던져진 흙공은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났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자연히 네트워크가 구축됐고, 그 사람들은 이제 다음을 향하고 있다. 이번에는 환경에 더 나아가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꽃피우려 한다. 다소 소외돼 있던 해남천이 깨끗해지면서 무심코 지나치던 해남천에 작은 발길들이 모여들게 하고 싶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의 변신을 위해 올해는 해남천에서 전시, 음악공연, 플리마켓을 운영하며 사람냄새 나는 해남천을 만들어 보려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위한 아나바다운동에 주로 집중하며 지역민들이 협업의 가치를 느끼고 자연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그런 동행과 상생의 미래를 꿈꾼다. 또한 우리의 활동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환경교육(성인)



환경교육(어린이)



환경캠페인

담당자 소감

해남군 혁신공동체과
주무관 정규홍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주민주도 사회혁신 사업인 '해남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작지만 뜻깊은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해남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김승혁

해남은 아파트공동체
회장 황은희

아이들이 해남천에서 물놀이를 하고 주변 산책로에서 뛰며 노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해남천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EM효소로 만든 흙공을 던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남겨줄 소중한 자연환경이기에 염원을 담아 부탁하는 마음으로 던졌습니다.

순천시

종이팩 자원순환 챌린지 <유익한 캠페인>

★ 2021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선정



종이팩(우유팩)의 자원순환 가치 및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홍보하고

종이팩 수거활동을 시민참여 캠페인으로 발전

주민이 주도하는 종이팩 재활용 캠페인 실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방법이 다른 종이팩의 활용 방안에 대해 홍보하고 종이팩이 가진 자원 및 생태순환의 가치를 알려 시민들이 종이팩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주민이 주도하는 종이팩 재활용 캠페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시작했다.

종이팩 모으기에

동참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2019년부터 시작한 종이팩 자원순환 챌린지 「유익한 캠페인」은 종이팩 모으기에 동참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유익한 인식개선 올바른 종이팩 재활용 방법 홍보(영상물/책자)

유익한 파트너십 참여 카페 및 참여자 굿즈 제작 배부

종이팩 정거장 시범마을 선정 후 종이팩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유익한 활력소를 중심으로 우유 소비가 많은 카페와 개인의 참여 등 지속적 확산을 추진하고, 종이팩 수거, 택배발송 등 전 과정을 SNS로 공유하여 단순 보상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환경 챌린지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시범마을(종이팩 정거장) 사례를 통해 종이팩 재활용 문화가 지속적인 생태 캠페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종이팩 재활용에 참여의사가 없는 카페, 일반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종이팩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가게로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강화 방안을 모색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방법에 대해 SNS홍보, 유튜브 영상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했다.

적치 공간 부족 문제는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종이팩 재활용 플랫폼 구축>

종이팩 적치 공간이 부족했는데, 종이팩 재활용 참여가 높은 조곡동을 시범마을로 선정, 종이팩 수거 공간을 마련하여 종이팩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했다. 올해는 유익한 활력소와 인접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순천역 근처에 위치한 곳에 별도 공간을 조성하고, 향후 순천의 종이팩 재활용 공간을 상징하는 스탓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교 방문 및 마을 행사를 통해 종이팩의 올바른 재활용 방법 알려

학교를 방문하여 종이팩의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부)하고 조곡동 동네 행사를 활용해 종이팩 인식개선을 추진했다. 참여한 카페와 개인에게는 굿즈를 제작해 배부하고 수거된 종이팩은 제지회사로 발송했다.

- 2021. 4. 지구의 날 기념 구례 중앙초등학교 방문 및 교육
- 2021. 7. 13. 신대초등학교 6학년 대상 종이팩 자원화에 대한 수업
- 2021. 7. 20. 신대초등학교 교내 어린이마켓에서 우유팩 11.5kg 수거
- 2021. 8. 조곡동 동천 버드나무마켓 종이팩 교환코너 운영
- 2021. 9. 4. 조곡동 주민총회 사전투표행사 종이팩 교환코너 운영
- 2021. 9. 7. 조곡동 주민총회 부대행사 종이팩 교환코너 운영

※ 파트너십 구축 : 순천(44곳), 구례(6곳), 군산(1곳), 서울/경기(2곳),
수거량(2019년 ~ 2021년) : 73,030개, 발송량(2021년) : 1850.36kg(총 6회 발송)



종이팩 분류 및 정리



종이팩 발송

종이팩 재활용 정거장 구축

종이팩이 모이는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수거뿐만 아니라 종이팩 적치, 재활용까지 가능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재활용, 친환경 메시지가 담긴 포토스팟으로 조성하여 2023국제정원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생태도시 순천의 상징 장소로 발전시킬 것이다.

종이팩 재활용 인식개선 캠페인

종이팩은 종이와 다르게 분리 배출해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른 종이팩 분리수거에 관심을 갖도록 SNS로 홍보하고, 참여자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영상으로 소개했다.

종이팩 모으는 날을 정하여 종이팩을 수거하고, SNS 인증으로 종이팩 모으기 릴레이활동을 전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제로웨이스트 리워드를 제공했다.

유익한 파트너십 구축

종이팩재활용 캠페인에 6개월 이상 참여하는 카페·숍에는 제작한 현판을, 개인 참여자에게는 굿즈를 제작해 배부함으로써 소속감을 부여 했으며, 조곡동 주민자치회, 역세권 주민 자치협의체와 협업, 역세권 도시재생지역(조곡동, 풍덕동, 덕암동)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학교 강의 및 우유팩 수거



참여가게 현판배부



종이팩 재활용 참여자



종이팩 재활용 참여자

담당자 소감

유익한활동소
대표 양진아

지원받은 사업비로 체계적이고 유연한 캠페인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밀크로드 영상 및 책자 등 많은 홍보로 종이팩재활용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어느 때 보다 뜻 깊은 한해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 자치혁신과
팀 장 김동영
주무관 박석준

해를 거듭할수록 종이팩 재활용에 동참해주시는 시민 분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혁신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작은 변화의 움직임들이 모인다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

노인&장애우 협동 치유 농업활동

★ 2021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선정



장애우와 인지장애 징후 노인이 함께하는 공동 치유농업 활동, 영농교육 및 실습, 인지능력 향상 교육 등을 운영하여 소외 계층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얻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소외된 계층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현재 대한민국 인구 문제로 이슈화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지역 노인들의 인지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우가 주도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외된 계층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장애우가 본인의 잠재역량을 발휘하여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도록 했다.

장애우 부정적 인식 재고를 위하여 “장애인” 대신 “장애우”를 사용

인지장애 부정적 인식 재고를 위하여 “치매” 대신 “인지장애”를 사용

치유농업 장애우 대부분 농업관련 역량이 우수하고, 특히 인지장애를 보이는 노인들의 성장배경이 농촌임을 고려할 때, 치유 농업이 인지장애 예방에 효과적



인지능력 검사를 통해 참여자의 현재 상태 진단

장애 정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대학교 및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

모두가 더불어 사는 “노인&장애우 협동 치유 농업 활동”은 약 9개월간 기수별 4개월짜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총 2회 추진하였다. 참여자 대화 시간에 인지능력 검사 등을 통하여 현재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①중증 : 공동 치유농업 활동(허브 화분 만들기, 공동정원 관리, 음식(차) 만들기 등), ②경증 : 영농교육 및 실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참여자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교육생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였고, 인지놀이 등을 통하여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주도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화순군 관내 하늘사랑 장애우 주간보호센터, 장애우 자립생활센터,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생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대학교 및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숙련된 교수진으로 구성, 자원봉사 및 재능 기부를 통해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세 부 사 업	2021년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홍보, 희망자 모집 참여단체·교육생 간담회	1기				2기					
직무·인지능력 검사		1기				2기				
공동 치유농업 활동			1기				2기			
영농 교육 및 실습활동				1기				2기		
교육생 설문조사									1기 2기	

9개월간 50여명 교육

노인과 장애우의 자신감 회복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약 9개월에 걸쳐 2개 기수(기수당 : 25명), 총 50명을 교육하였으며, 교육 마지막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시에는 교육 참여자 모두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 사업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2022년 사회혁신 공모사업(일반분야) 선정

올해는 작년에 시행한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 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우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지 장애를 예방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담당자 소감

화순군 기획감사실
팀 장 **구현진**
주무관 **김대은**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우리 지역 사회 내에 소외된 계층에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치유 농업 활동’을 통하여 따뜻한 온정을 전하다.”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7.4%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장애를 느끼는 인구는 5,125명으로 약 8.19%이다. 취약 계층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과 손길이 필요한 시기인 지금, 우리 지역 내 장애우와 인지장애 노인 등에게 자원 봉사하는 단체(스마트협동조합)에서는 2021년도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취약 계층을 위한 힐링 농업 활동을 약 1년간 전개하였다.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인지능력 검사를 시작으로 맞춤형 테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지 장애를 예방 및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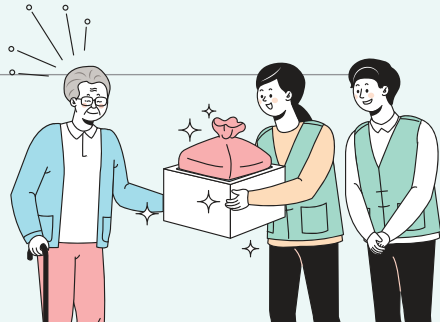
또한,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높은 성과를 창출했다. 앞으로, 위 사업의 보완점을 찾아 해결하고, 주변 사회 봉사단체에 확산시키는 홍보 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흥군

음식으로 소통하기 다양한 밥상나눔 & Cooking스토리

★ 2021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선정

관내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소통과 조기 정착 도모



나와 다름은 단지 외형적 모습이지 실체가 아니다!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어촌지역인 우리군의 경우에도 2021. 2월말 현재 476명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정착해 살고 있다.

자라온 생활환경과 문화, 언어의 이질성은 이주여성들에겐 주민들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우리와 다름에 대한 선입견 등 커다란 사회장벽으로 다가왔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우리군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다함께 만드는 행복」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다양한 개선방안을 고민하였으며, 「나눔과 봉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다양한 한국전통음식을 배우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요리 음식을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는데 일조하였으며, 이주여성이 외국어 교실 강사로 활동하면서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끝없는 소통과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먼저,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발전 공헌의 첫발을 내딛고자 「국경없는 다양한 요리회」, 「행복나눔 봉사단」 운영, 외국어교실 「신나는 일상」 총 3가지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우리군에서 추진한 「다양한 밥상나눔&Cooking스토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자!

이주여성들의 한국음식 만들기 도전! 국경없는 다양한 요리회

고흥군 이주여성들 스스로 「한국 전통음식 배우기」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음식문화를 이해하고, 이주여성 간의 교류 및 소통의 기회로 활용했으며, 교육생들도 열정을 갖고 열심히 배우는 등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는 뜻깊은 과정이었다.



한국전통음식배우기(강의)



한국전통음식배우기(강의)



한국전통음식배우기(실습)

나눔과 봉사는 함께하면 배 이상의 행복으로 되 돌아온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성과 열정으로 만든 전통음식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평소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람도 함께 얻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다.



행복나눔봉사단(말벗 등)

지역민의 외국어 학습을 통해 외국문화 이해 및 선입견을 버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외국어 재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전환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했다. 총 204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베트남어, 영어 등 기본회화와 역사·문화를 학습했다.



외국어교실 「베트남어교육」



외국어교실 「일본어교육」



외국어교실 「영어교육」

온실속의 화초보다 야생에서 자란 화초가 더 강하다!



고흥군에 거주하는 다수의 다문화 가정의 농업이 주업으로 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해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요리강의를 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음.

» 교육대상자 신청 시 대기 신청자를 함께 접수받아 결원을 최소화하였으며,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소 섭외 해결 (일정조율 등)



나눔봉사를 실천할 대상가구 선정과 위치파악 애로

» 고흥군 종합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 가구를 선정하고 대상 가구의 기본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나눔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프로그램이 특정 외국어 (영어)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체험활동 등을 통한 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 본 사업의 취지 및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민과 이주여성간의 소통 및 개선사항을 토의하면서 해결함.

1%의 천재성보다 99%의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국경없는 다양한 요리회”는 60여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강요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었다. 평소 한국음식 강좌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자존감 향상 등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행복나눔봉사단」을 통해 우리지역 소외계층에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외국어교실-신나는 일상」 프로그램을 결혼이주여성의 재능기부로 운영하면서 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협적인 시각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다함께 만드는 행복」을 통해서 정기적인 지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봉사와 나눔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예산이 지원된다면 더욱 실질적이고,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item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미담사례

나눔 이야기

독거노인(두원면 거주) A씨는 홀로 생활하다 보니 식사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한국음식을 만들어서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배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반응을 몸소 느끼면서 소소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담당자 소감

고흥군 군정혁신단
주무관 정충훈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지역이주여성들의 나눔봉사활동 및 외국어 교실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이주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고흥군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구성원임을 느끼게 되었다.

다함께 만드는 행복
박혜린

결혼이주여성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친목활동에 머물러 있던 모임이 다른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따뜻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한다.

함평군

세대공감, 행복나눔 배달천사

★ 2021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선정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직접 나눔물품, 천연비누, 눈꽃빵을 만들고
손편지를 써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방문 전달함으로써 세대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 분위기 조성에 기여

코로나 시대

단절이 강요되는 시대, “애들아 내려 오지 마라”

어르신들은 그 어느 해보다 어버이날과 명절에 가족과 만나지 못한 채 외롭게 ‘독거’하는 현실에
놓였다.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이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의 손자 손녀가 되어 외로움을 달래
드리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사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스쿨버스 시대, 아이들이 가장 접촉이 적은 세대-바로 노년의 어르신, 아이들에게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나눔 물품과 손편지를 준비하고 나눔으로 공감과 이해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



나눔물품제작(천연비누)



사랑의 손편지



나눔물품 전달

지역아동센터 11개소 250명의 아동과 종사자들이 어버이날과 추석을 맞아해 지역 어르신 가정을 방문

직접 만든 천연비누, 무방부제 눈꽃빵과 함께 사랑의 손편지를 직접 읽어드리면서 전달

함평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함평군지역아동센터 11개소 250명의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이 나눔물품으로 직접 만든 천연비누, 무방부제 눈꽃빵과 사랑의 손편지를 직접 써서
어버이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어르신 280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랑의 손편지를
직접 읽어드리면서 전달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아동센터 11명, 군 및 읍면 복지공무원
13명, 독거노인돌봄수행 기관 3명 등이 참여하여 사업 전반적인 내용과 지원대상 어르신 추천
방법, 민·관 협력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3개면(신광, 학교, 대동)을
포함하여 함평군 전체 9개 읍면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나눔 물품을 제작 후 방문할 지역의 어르신을 매칭하고, 해당 지역의 읍면
사무소, 학부모회, 지역과 연계한 차량 섭외 후 나눔물품을 5월과 9월에 아동들이 직접 배달
하였다. 이후 각 센터별로 평가 및 후기 작성과 더불어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지역 언론 등에 홍보하였다.

사업참여 주체별로 함평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관내 11개소 지역 아동센터와 사업 공유, 진행
과정 논의, 홍보, 나눔 재료준비 및 실행 평가하였으며, 각 지역아동센터는 자치회의를 통한 사업
취지 및 중요성, 나눔, 물품제작, 방문 논의, 나눔, 후기 작성 및 자체평가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학부모회는 동서남북 각 방향별로 차량봉사를 도와줬는데, 1차(2021. 5월)
때는 나눔물품 제작 등의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전달 시에도 지역의 위치 등을 잘 몰라서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2차 나눔물품 전달 시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이외에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해당 지역 주민복지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나눔 물품 전달 시 1차 때 비닐봉투를 사용하다가 참여자가 의견을 내 2차 때는 종이가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도 했다.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지역아동센터학부모회의



지역아동센터 밴드홍보

지역 어르신을 직접 살피봄으로써

아동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중요성 알리는 계기

어르신과 아동의 만남으로 세대 공감 형성

코로나 상황 속 더 외로워진 지역 어르신들의 마음을 나눔을 통해 달래드리고 힘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의 어르신들의 형편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공감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한 서로 돌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나눔물품 제작 및 전달(총 2회-1차 5월, 2차 9월)

지역아동센터별				제작및 전달	천연비누 만들기	눈꽃빵 만들기	사랑의 손편지쓰기	지원 대상 어르신
구분	센터정원	개소수	참여아동					
계		11개소	250명	총2회 1차5월, 2차9월	1,120개	1,120개	560통	560명
제작 물량	29인 시설	6개소	160명		720개	720개	360통	360명
	19인 시설	5개소	90명		400개	400개	200통	200명
제작주관				나비들학당	반딧불이 지역아동 센터	각지역 아동센터 11개소		

지역 안에서 나눔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세대 간 연결망을 구축하였으며, 만남(접촉)을 통한 세대 공감과 통합을 이뤄냈다. 아동들의 나눔 활동을 통하여 ‘사람의 따뜻한 정+올바른 이해심+감성’을 가진 인격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스쿨버스 세대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방문 및 나눔 활동을 통해 세대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22년 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2021년 경험을 토대로 각 센터별로 많은 인원이 아닌 10명 정도의 인원을 선정하여 분기에 1회 정도 찾아 뵙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미담사례

배달천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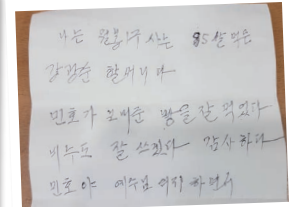
“누가 내 이름을 부르다냐?”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아이들의 인사를 받는 순간 눈물을 흘치시며 “오매 내 새끼들, 우리 아그들 보는 것 같네”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반가워하셨다.

한분 한분 한결같이 반겨주시고 고마움의 인사를 따뜻하게 아이들에게 건네주셨다. 차량에 오른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일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라며 서로 공감하고 다음에도 꼭 찾아 뵙고 싶다고 말하였다.

나산면 월봉리에 거주하는 강○○ 할머니는 반딧불이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홍○○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수 쓴 답장과 함께 용돈 만원을 보내셨다.



나눔물품 전달



지역어르신 감사의 답장글

담당자 소감

나비들학당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김문호**

가르치지 않아도 현장에서 정중하게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손수 제작한 나눔물품과 손편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산교육이 이런 거구나! 다시금 느꼈다.

하늘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귀임**

우리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과 매칭, 방문하기까지 해보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직원과 생활관리사 분들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위해 민·관의 어른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꿈이룸지역아동센터
학부모회장 **김진아**

정성스러운 선물을 들고 어른들을 찾아뵙는 아이들과 고마운 마음으로 맘껏 아이들을 축복하는 어른들을 보는 현상이 너무나도 귀했다.

여주시

The(더) 나눔

주민주체의 조직활성화를 통한
나눔 공동체 문화 확산 프로젝트



2021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선정



마을 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 주민을 지역사회 활동가로 육성, 지역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교육 및 지역 활동가 양성 필요

현지 주민을 중심으로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지역별
(문서·여서·충무동)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대상 교육 및 지역 활동가 양성이 필요했다.

이에 해당 동의 통장 및 다양한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마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주민을 선정
하고 마을활동가 교육을 시작했다.



마을활동가 교육



마을내 위기세대 발굴 물품 포장&전달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업사이클 운동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소외계층 40세대에게 긴급지원물품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 지역주민 200명과 함께 페페트병을 활용한 화분만들기

사업추진 관련 설명회를 구역별(여서·문수·충무동)로 개최하고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12명을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비전 워크숍을 실시, 연간 진행될 사업을
소개하고 공동목표를 설정해 나갔다.

연 5회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활동가가 자발적으로 발굴한 소외계층 40
세대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저탄소 녹색생활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지역 주민 200명과 함께 페페트병을 활용한 화분
만들기로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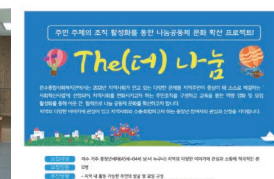
코로나-19시대에 비대면 맞춤 프로그램인 랜선 사랑방 모임을 연 10회 추진하여 마을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추진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와 후기를
나누면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자 '인사 및 소통 캠페인'을 '자원
재활용 업사이클링 캠페인'으로 변경 추진하였다.

지역 언론과 기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지역사회 내 사업 홍보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비전워크숍 개최



인터넷신문 등 홍보



긴급지원세대 물품지원

소외계층 비상연락망 확보로 복지사각지대 돌봄망 구축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간 유대감 강화

마을리더 아카데미 참여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비상 연락망 확보로 복지사각지대 돌봄 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눔을 통해서 이뤄짐에 따라 주민들 간 유대감 형성이 강화되었다.

작년에 이어 2022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2021년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사업 주제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실습형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요리놀이터체험



내 이웃발견하기 물품전달



통장단 회의 사업 홍보활동



미담사례

The 나눔 이야기

여수시 구도심권인 충무동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동가들이 무엇을 할지 논의한 끝에, 오림동부터 진남관까지 길을 안내판과 함께 태극기 등을 설치하여 ‘이순신부임지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구상, 계획서 작성, 의견 제안 등을 직접 추진하면서 마을 활동가의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의 계기가 되었다.

담당자 소감

문수종합사회복지관 함유진

지역의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함께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복지관이 조력자가 돼 주민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내가 하는 일과 노력들이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

마을활동가 서인원

충무동에서 20년 넘게 통장생활을 하면서 마을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접근 방법 등에 대한 막연함으로 실천이 어려웠다. 마을활동가 양성과정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등 마을복지를 위한 자발적 실천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도민을 웃게하는
행복한 변화



Chapter

03 협업 우수사례

생활불편 ZERO! 언제나 부르면 OK!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전국 최초, 초등학교 전체 우유 무상급식 확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안전용품 설치·지원사업
민·관·경 협력 연안사고·해양쓰레기 없는 연안 만들기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생활불편 ZERO! 언제나 부르면 OK!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021년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1위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생활불편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 지원,
위기가구 발굴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언제나 부르면 달려가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 해남군 산이면 김 모 할머니의 집은 수년 전 화재로 주택의 일부가 소실되어 수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으로 스스로 집을 복구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이 시커멓게 불탄 벽면과 천장을 닦고, 새로운 재료를 덧대어 수선하고, 도배·장판을 교체해주 할머니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 도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증가*로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생계문제 뿐만 아니라 전등교체, 전자제품 오작동 수리 등 단순한 생활불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노인 전남 24.3%(전국 17.1%, 전국 1위),

장애인 전남 7.6%(전국 5.1%, 전국 1위),

기초수급 전남 5.5%(전국 4.6%, 전국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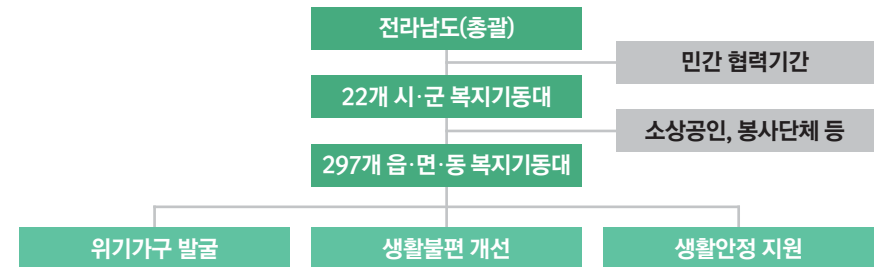
지리적 여건상 섬*과 오지지역이 많아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서비스 수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일상생활 불편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공복지서비스는 없었다.

섬 2,165개 전국 65%, 전국 1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순수 자원봉사 조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출범시켰다.

도민이 알고 참여하는 “총총한 복지안전망 구축”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297개 읍·면·동 총 319개 기동대 2,208명으로 구성되었다. 1개 기동대에는 전기·가스·주택설비 종사자·이통장 등 이웃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알면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주민 10명 이내로 구성된 민간합동 복지안전망이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전등, 수전, 창틀, 전자제품 오작동 등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수리해 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는 생계·의료·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금을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전라남도는 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지난 3년동안 총 51,496가구에 80억 원을 지원하였다.



집중호우 피해가구 지원



노후된 보일러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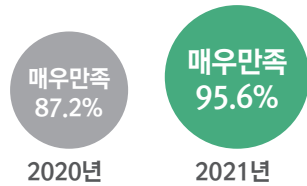
주거환경 개선

이웃들의 재능기부 문화 확산 “따뜻한 공동체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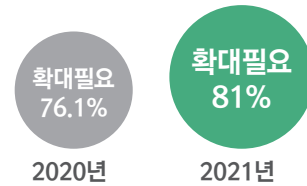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주민 관점에서 민관협력 복지안전망 실현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결정에 지역주민 참여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때는 복지기동대원과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서 원칙적인 지원대상이 아닐지라도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가급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 이웃을 잘 아는 복지기동대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우리동네 전기·보일러 수리업체, 빨래방 등 동네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이웃들의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용자 만족도 향상



복지기동대 확대 요구 증가



민관협력을 통한 도민 맞춤형 서비스 연계·협업

어려움을 겪는 제도권 밖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시군 및 민간 협력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협업기관명	협업내용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복지기동대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시군·읍면동·민간협력기관 복지기동대 운영 및 활성화 -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후원 활동 및 기탁식 개최(12개 기관, 615백만원)
전남소방본부	복지기동대와 찾아가는 119생활안전순찰대 연계·협업
전라남도 대변인실	- 복지기동대 캠페인 영상 제작 지원(5편) - 유튜브(으뜸전남튜브), SNS 등 홍보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복지기동대 통합브랜드(BI) 개발 지원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 도민참여 활성화를 한 모바일 앱(우리동네SOS) 개발 -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서비스 연계
16개 협력기관	- 민관협력기관 서비스 구축 및 연계 지원 - 전기, 가스, 보일러, 의료 등 전문분야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봉사센터, 지역가스공사 등



앞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단위 협력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자원조성을 위해 상시연계망을 구축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소하지만 도민이 행복한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앞장서도록 하겠다.



협업 참여자 소감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주무관 **서원주**

도민의 생활불편 해결사로 활약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더욱 활성화하여 법과 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임 **이재두**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기동대를 통해 전라남도 전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긴급히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추어 지원하는 복지기동대 사업은 미래에도 지속적인 예산투여가 필요한 복지필수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위 사업의 일원이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전국 최초, 전남 전체 초등학교 우유 무상급식 실시



2021년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2위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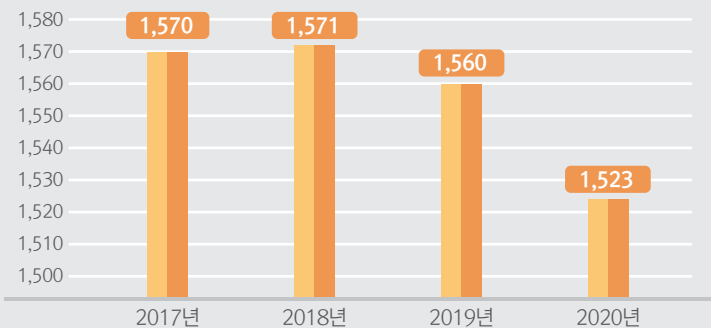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던 우유급식을 초등학교 전체에게 확대·시행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우유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에도 도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으로 우유 소비량 감소, 낙농가의 어려움도 가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우유급식 미실시로 우유 소비량은
크게 감소되었고 이에 따른 낙농가의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2020년 우유소비량은 2019년 대비 월평균 3천톤, 연간 37천톤이 감소하였고, 농가당 연간
17백만원의 피해가 예상되었다.

연도별 음용유 사용량(단위: 천톤)



또한, 농식품부 지침상 우유급식 지원대상이 사회취약계층 자녀들에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 학생들(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신분 노출 우려로 인해 우유급식을 기피하고,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은 지속되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필수영양소 공급(골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칼슘의 주공급원이며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0년간 지속
되어 왔다.

우유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우유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

4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학교,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라남도 학교우유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근거 마련

학생들의 우유급식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우유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2020년 9월부터 교육청,
시·군, 생산자단체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우유급식은 행정기관에서는 전체적인 관리와
보조금 집행을 하고, 대상자 선정부터 업체선정·우유공급 등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다.

4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해 지원 확대
대상자 수요조사를 2회 실시한 결과 지원대상을 전체 초등학교,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3자녀 이상 가구 자녀로 확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도 자체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근거 마련을 위해 2021. 2월 「전라남도 학교우유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2021.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우유급식 확대 지원을 시작했고, 지원대상은 2020년 57천명
에서 2021년 132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지침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특수교육대상자

5만 7천명

도 확대 지원대상

전체 초등학교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7만 5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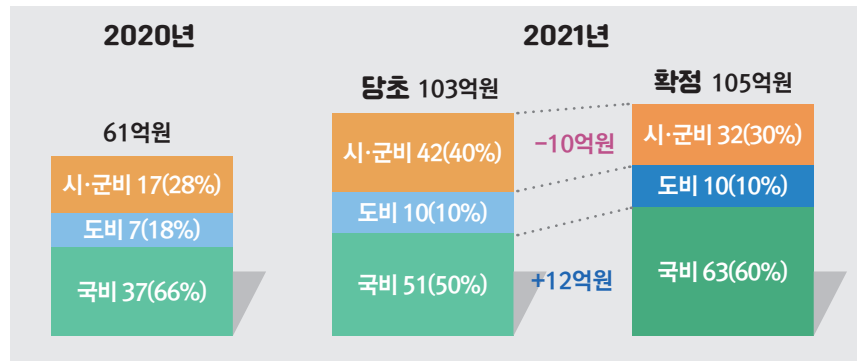
13만
2천명

부족한 예산은 타 시·도 불용예정액을 우리 도로 배정받아 해결

가장 큰 문제는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예산 추가 확보였다. 우선적으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22개 시·군 우유급식 예산 불용액 11억을 전체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였
으나 농식품부와 사전 조율 부족으로 전체 반납조치 공문이 내려온 것이다.

농식품부 담당자에게 매일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2021년 농식품부 예산액 유보분을 하반기에 전남에 배정해주는 것으로 구두 협의를 하고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농식품부 담당자가 갑자기 변경돼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했다.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기를 수차례 거듭한 결과, 2021. 7월 타 시·도 예산 불용예정액 12억원 전액을 전남도에 배정한다는 확정 공문을 받았다. 국비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조정(국비5 : 지방비5)했던 보조금 지원비율을 당초 비율(국비6 : 지방비4)로 재조정하고 시·군에 국비를 추가 배정함으로써 지방비 재정 부담을 완화 시킬수 있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우유를 마셔요 -우유 소비량 3,700톤 증가

“우유를 안 먹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우유를 먹어요.” 어느 학부모의 의견이다. 신분이 노출될까봐, 우유가 싫어서 등등의 이유로 우유를 기피했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우유급식 확대를 적극 환영하며, 중·고등학생까지 전체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 학교선생님들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줄었다고 했다. 우유급식을 통한 우유소비량은 약 3,700톤 이상 증가했다.

* 우유소비량 2,850천톤 → 6,600천톤(증 3,750)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타 시·도에서도 점차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 광주광역시(2021.6월부터 소규모학교 24개교 전체 학생 우유무상급식 실시), 강원도(2022년 초등 전체 확대), 충북(교사노조에서 초등 전체 확대 요청)

도내 낙농가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우유 기부를 통해 온정을 나누고, 장성중앙초등학교는 우유급식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중·고등학생까지 전체 우유무상급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건강한 우유 음용 습관이 국민 건강 향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유소비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협업기관 및 역할

협업기관	협업내용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사업 총괄, 사업 계획 수립, 제도 개선 등 - 사업비 확보 및 배정, 정산 등
시·군 축산부서	- 시·군 교육지원청 협조 - 우유 공급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등
도 교육청 체육건강예과	- 도 축산정책과 협의(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 등) - 교육기관 추진현황 총괄
시·군 교육지원청	- 시·군 축산부서 협조(학교 및 사업대상자 현황 파악 등) - 사업 관련 현황 파악 및 의견(문제점, 애로사항 등) 제시
학교	공급대상자 및 공급업체 선정, 우유 공급 등
낙농육우협회 전남도지회	낙농현황 자료 제공 등 협조

협업 참여자 소감

전라남도교육청
주무관 **임서영**

우유급식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학교나 교육청으로 제기되는 학부모 민원이 감소되고 업무부담이 줄었습니다. 학교,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면서 우유급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농육우협회
전남지회장 **이정열**

사료값 폭등, 우유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낙농가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우유소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총무과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안전용품 설치·지원사업

★ 2021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3위

생활 속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민·관·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한데 모아
어르신들에게 복지·안전서비스 제공



어르신들에겐 더 위험한 낙상사고, 예방에 관심 가져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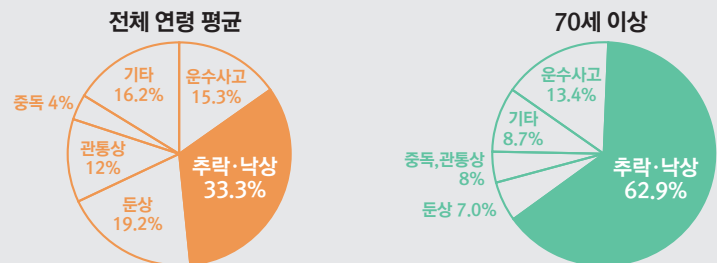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는 손상*환자 중 추락 및 낙상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62.9%가 추락 및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는다고 한다.

또한, 70대 이상 어르신 1만 명 중 2.6명이 추락 및 낙상으로 사망**했는데, 젊은이들에겐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날 부상도 노화로 인한 운동신경 저하, 골격이 약화된 고령자에겐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 (손상) 사고, 재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 사망원인통계(2019년)

»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질병관리청)



가정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르신 낙상사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하고 안전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

고령자들의 낙상사고는 일상생활 중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홀로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사고가 일어나면 응급구조가 늦어져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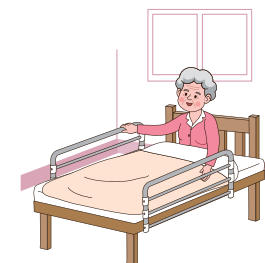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고령층의 복지·안전 서비스 확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으며, 고령자 낙상사고는 우선 예방해야 할 시급한 문제였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민간단체와 함께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안전용품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어르신의 연령, 소득, 건강, 가족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했다. 단순히 안전용품만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함께 쓰레기 치우기 등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중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신청자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각기 다른 주택구조 상 설치에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산 부족으로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설치를 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나주시,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2021 협업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지원,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했다.



민간, 지자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아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가 설치하기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원, 역량, 경험을 한데 모아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 모델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안전용품 설치 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해늘사회적협동조합은 안전용품을 제작·설치하고 하자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전력공사, 나주시에서는 재원을 부담했고,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동의 등 행정절차는 시에서 전담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회공헌기금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인 러브펀드를 활용해 재원을 부담했다. 사업 추진 중 협업기관이 확대되기도 했는데, 전력거래소에서 재원을 부담해 순천지역 30여세대에 안전용품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은 지역의 상생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용품 설치 모습

협업기관 및 역할

협업기관	협업내용
전라남도 총무과	• 참여기관 모집, 협약식 등 협업체계 구축 • 기관·단체간 갈등 및 의견대립 조정 • 사업홍보, 확산 방안 마련
나주시	• 수요가구조사, 우선순위 설정, 자원부담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 자체 기금·펀드 등을 통한 자원부담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 안전용품 설치, 하자보수, 설치인력 고용
해늘사회적협동조합	• 안전용품 제작, 설치·하자교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공기관의 현금 기탁을 통한 자원 배부 • 공공기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미담사례

안전 이야기

안전용품 사용 어르신

잘 사용하고 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힘들이지 않고 다리를 얼릉 떼고 참 좋네요. 노인들한테 참 편리해요. 계속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

협업 참여자 소감

한국전력공사

코로나-19로 자택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들의 낙상사고 또한 증가해서 골절상 등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주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어르신들에게 방문한다고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는데 병원에 가시거나 해서 안계신 경우가 많았어요. 두 세번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설치가 끝난 후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민·관·경 협력 연안사고·해양쓰레기 없는 연안 만들기

★ 2021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4위

연안사고를 줄이고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민·관·경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전남 연안환경 조성

연안사고 : 갯벌, 갯바위, 선착장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으로 발생하는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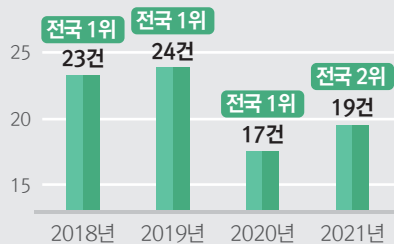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연안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끊임없이 발생하는 연안 사고 예방과 해양쓰레기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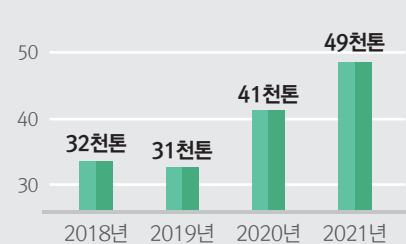
전남은 해안선의 길이가 6,743km로 전국에서 가장 길고, 천혜의 보석같은 섬이 2,165개로 가장 많다. 또한 1,099개의 어항 그리고 65개의 해수욕장 등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연안해역을 보유하고 있다. 연안해역이 넓은 만큼 갯벌, 갯바위, 방파제, 선착장 등 연안지역에서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양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 해안선 6,743km(전국의 45%), 섬 2,165개(65%), 어항 1,099개(58%), 해수욕장 65개(23%)

연안사고(사망) 발생 건 수



연도별 해양쓰레기 처리량 (단위: 천톤)



그런데 전남 해역의 연안사고 예방과 해양쓰레기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현장 직원의 수는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전남 관할 해양경찰 현황 해경청1, 해경서3, 18개 파출소, 연안안전관리 인력 1,697명(전국 11,658명의 15%)

지자체와 해양경찰의 인력한계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민·관·경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해양항만과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주관, 연안사고 예방 협업 + 민간협력

구조안전과, 수사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 주관, 해양쓰레기 제로화 협업 + 민간협력

안전하고 깨끗한 전남 바다 만들기를 위해 전라남도도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만나

시·군, 해경, 연안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연안사고 위험구역 합동 안전점검' 실시
섬지역 해양쓰레기 정보지도 제작, 해양정화활동 등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실시

도에서는 광범위한 연안해역에 비해 부족한 인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전남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1년 7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도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각 기관이 주관하고 있는 연안사고 예방 및 해양쓰레기 처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한 바다를 위해 도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바다의 날 등 기념행사를 협력하여 개최하고, 연안사고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공유 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하반기 도 주관으로는 처음으로 '연안사고 위험구역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안해역 13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해경, 연안안전지킴이 등 65명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바다의날, 해안선 레저페스티벌 등 연안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서도 도지사가 직접 참여해 '연안사고 예방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연안사고 예방 홍보 3회, 500명 / 바다의 날(6.25.), 해수욕장 안전점검(8.10.), 해안선 레저페스티벌(8.28.)



연안사고 합동점검



'바다의 날' 안전캠페인



안전체험관 부스 운영

도에서는 2018년부터 깨끗한 전남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 프로젝트’를 추진 해오고 있다.

매년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10% 감축하고 수거처리량을 15% 확대해 2026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사전예방, 수거 효율화, 기반시설 확충, 재활용 확대,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2만 6천 톤으로 추정하는데, 해양쓰레기는 발생 원인에 따라 육상기인, 해상기인, 외부기인으로 분류되며, 어선어업과 양식 등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상기인의 해양쓰레기가 전체의 5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연간 26,713톤 / 해상기인 13,694톤(51%), 외국기인 12,540톤(24.4%), 육상기인 479톤(2%)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 협력을 위해 2021. 8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상 폐기물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했다. 무인 비행기를 활용한 섬지역 해양쓰레기 정보지도 제작, 해양정화활동 등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였다.



해양쓰레기 제로 캠페인



해안가 정화활동



해양환경보호 퍼포먼스

2022년 3억 5천만원 예산 확보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민간해양구조대 수난구조 활동 지원

도 주관으로 실시한 연안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였으며,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등 신규시책 2건을 발굴하고 2022년 예산 3억 4천 5백만원을 확보했다.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16개 시군, 100개소, 3억 원(도비 30%, 시군비 70%)

민간해양구조대 수난구조 활동 지원 3개소, 45백만 원(도 100%) / 인명구조 물품 구입 및 실습 지원

앞으로도 전남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줄이고,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민간 등과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업기관 및 역할

협업기관명	협업내용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연안사고 위험구역 합동 안전점검 등 사업추진 계획 수립 홍보,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점검, 해양쓰레기 제로화 계획 수립,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관리 등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수사과	연안사고 예방협의회 운영, 연안해역 위험구역 조사 실태점검,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관리,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종합대책 수립 시행 등
시 군, 해경파출소, 연안안전지킴이 등	연안사고 위험구역 합동 안전점검, 해양쓰레기 수거, 투기행위 감시, 연안사고 예방 및 바다환경 보호 실천 캠페인 참여 등

협업 참여자 소감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주무관 **김영선**

바다는 함께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 민·관·경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다양한 정책 발굴이 기대됨. 앞으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해양안전반장 **강윤경**

연안사고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사고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함.



2021년 적극행정·사회혁신·협업 우수사례집

도민을 웃게하는 행복한 변화

발 행 처  전라남도

발 행 일 2022년 6월

내용문의 T.061-286-3322, 3323

디자인·인쇄 디자인 숲

도민을 웃게하는
행복한 변화